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3 11/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kdta@chollan.net
홈페이지: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있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바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6호 2003년 11/12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목론이 황미혜, 김희정/펴낸날 2003년 11월 15일

2 권두언	보육교사에게 중요한 것	최상림
4 보육정책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 제안	서정은
10 기획시리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4)	심선경
13 현장교육 1	아동과 아동의 평화를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이경녀
27 현장교육 2	만국기 휘날리며...	안미경
32 현장소식 1	광주에서 울려 퍼진 양성평등 목소리	김경아
34 현장소식 2	보육교사 권익상담 교육을 받고...	지연
36 현장소식 3	수리산에서 우리는...	윤금주
38 현장소식 4	박물관 나들이 갈래요?	류지민
40 일꾼수련회 (1)	경주에서의 좋은 만남 그리고 결론, 한국보육교사회-	김정자
42 일꾼수련회 (2)	아들과 함께한 가을 여행	이정인
44 일꾼수련회 (3)	육아도우미로 함께 하면서	김호연
46 새내기인사	부산보육교사회와의 인연	하연주
48 인물탐방기	2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이들 곁에 계시는 유호순-	이명숙
50 좋은 그림책소개	제주도 한 번 다녀오세요.	김정애
53 아이들과의 하루	초임교사의 하루	이보경
56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최종문
58 세상읽기	노동자는 하나다!	고영미
61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디지털 카메라와 보육의 궁합(?)	임정수
63 상담실 Q&A	산업재해	편집부
66 알람난		편집부
67 보육계풍향		편집부
71 소식과 소식		편집부
78 편집부에서		편집부

보육교사에게 중요한 것

최상림 ·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부대표

90년부터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일하게 되면서 보육시설을 가까이서 접하고 졸업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88년 여성 나눔의 집을 개원하면서 1층에 어린이집을 열었다. 기혼여성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흔치 않을 때였다.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데는 5시면 문을 닫으니 잔업은커녕 8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맡기기 어려운 곳 이어서 우리 스스로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저녁 7시까지 봐주는 어린이집은 너무나 반가운 곳이어서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월 1회 자모회에 모두 참여하여 어린이집 소식, 아이들이 커 가는 이야기, 어린이집 재정상황도 듣고 일 일주점을 열기도 하며, 탁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으러 이리 저리 뛰어다니기도 하 며, 그렇게 교사와 자모가 어린이집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인으로 참여했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무척 열악했지만 함께 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기에 기꺼이 감수했던 시기 였다. 그러나 몇몇 보육시설들의 힘만으로는 척박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기에 89년부 터는 '일하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며 탁아법 제정 운동을 했다. 결국 해영이 용철이 남매의 가슴아픈 죽음을 딛고서야 영유아 보육법은 제정되었다.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들이 마련되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생겨났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아직 우리 앞에 해결 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보육시설들의 여건은 90년대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꼭 지켜보면서 나에겐 하나의 의문이 계속 남아있었다. 그것은 너무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현실이다. 법이 정비되고 시설지원도 늘어나는데 보육의 주 체인 교사들의 근무여건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국공립과 민간 시 설 교사들의 처우 차이가 계속 되고 있는 것 역시도 큰 문제다. 1인 이상 사업체면 반 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법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4대 보험도 제대로 넣지 않는 곳도 많다. 근로기준법이란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때 계산되어야 할 50% 할

중수당지급, 월 1회 생리휴가, 월 1회, 연 10일 유급휴일 지급, 근무여건이 명시된 서면 의 근로계약 체결 등'의 내용인데 이 같은 근로기준법 다 지키며 시설 운영할 수 없다' 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라기도 했다.

나는 이 같은 현실이 지속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원인 중 하나 는 보육교사가 여성직종(일부 남성이 있기는 하지만)이기 때문이다. 남성이 많이 있다 면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을 지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직종과 남성직 종의 명확히 분리되어있으면서 남성의 60% 정도의 임금이 여성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여성이 생계유지자가 아니라는 낡은 관념 때문에 이 같은 처우가 당연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본인들이 못쳐서 시위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 단결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5만 7천명에 달하는 보육교사들이 있고 지역 연결들도 갖고 있는 데 이 같은 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다. 연봉 수 천 만 원대의 전문직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혹은 공공성 확 보를 위하여 단결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노동자인가 아닌가라는 논쟁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 식상한 논쟁인 것 같다. 전교조 합법화 10년 동안 교사가 노동자인가라는 논쟁은 이미 판정승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다. 그래서 교수들도 교수노조 만들기 도 하고 하는 것이다. 노동자라는 말이 싫은 것은 육체노동이라는 천시하는 생각이나 과격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보육교사에 중요한 것은 노동자인가 교사인가가 아니라, 보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그것의 주체인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정리하고 전체가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이 처우개선은 부모들의 보육료 인상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처 우개선은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 역시 환영할 일이며 부모들 역 시 마찬가지이다. 출산율 저하의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의지가 높다. 지금이야말로 주체들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목소리를 키울 시기이다. 아이를 맡 아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었기에 활동할 수 있었던 엄마로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서정은 · 본회 정책위원

최근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수원 등을 비롯, 각 지역에서 보육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2003년 10월에 보육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군 포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작업도 활발하다.

이러한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열의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포석의 하나라는 점,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여성단체, 지역단체가 눈을 돌린 결과라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후 보육사업에 대한 변화된 요구와 기대가 보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념과 구체적 시행에 대한 명시로서 '보육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토록 한다.

요보호 아동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심의 특별한 계층, 특수한 요구로 사고하던 보육사업은 이제 지역주민의 보편적 요구와 생활복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점차 지역 속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행정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보육문제는 영유아 보호·양육에 관해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단일한 보육사업지침을 통한 해결에서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역 고유의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갖게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역의 보육사무에 대해 정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지역 보육조례 제·개정 활동을 움직이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본 회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속에서 보육조례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 각 지역보육조례 제·개정 활동과 '보육조례'에 담을 내용 및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보육조례 제·개정 활동을 위한 제언

1) 각 지역에 보육사업을 명시한 조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기획위원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지역에 보육사업을 내용으로 명시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 화성, 하남 등 단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보육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나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에 보육관련 조례가 있다면,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보육조례는 크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보육조례'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며, 이들 조례에 대한 지역의 검토가 필요하다.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 등을 가능한 한 명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변화된 보육현실과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각 조항에 대한 재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통한 보육조례 개정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몇 개의 시(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해 명시하여 내용상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해당 지역의 보육조례 내용에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3) 지역에 보육관련 조례가 없다면, 다른 규칙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보육사업을 명시한 조례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보육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없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운영규칙이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보육조례가 없는 가운데 조례와 유사한 효력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행정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보육조례 제·개정을 위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보육조례는 영유아 보육에 일차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와 보육현장을 지키는 보육사업 관계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담당 공무원 및 의회,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적 숙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 아래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과 범위에 대해 개방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5)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범위에 따라 보육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보육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있음에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조례가 많음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보육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과 방향

현재 많은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보육조례는 각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육조례는 지역행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첨가와 더불어 변화된 보육환경과 기대에 맞지 않는 낡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보육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에 대해 기존의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거나 소홀히 되었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시·군·구(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한적 규정만을 담은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2) 보육조례는 아동보육을 둘러싼 성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아동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국가, 지역주민과의 협동적인 노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등 관계자와 부모 등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보육사업 속에서 협력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적 노력, 보육사업과 아동권리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 보육사업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과 제휴 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3) 보육조례는 아동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육조례의 목적조항을 살펴보면, 빠짐없이 '아동의 인권(권익) 향상'을 주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조항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경기도 군포시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으로 아동 학대프로그램을 추가한 것 정도이다.

일반 아동의 권익향상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조례에서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보육사업 속에서 다뤄져야 할 아동인권의 증진과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내 안전관리 체제 정비, 보육시설 내 학대 및 체벌 금지와 방지 노력, 보육아동에 대한 차별금지과 방지 노력, 보육 아동 개인의 정보와 문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아동 의견의 청취, 부당한 사항에 대한 보육아동의 상담 및 구제요청에 대한 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4) 보육조례는 종사자 권익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육사업이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높은 이직률에 따른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보육사업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당연하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사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과 증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의 적절한 관리, 보육교사의 적절한 재교육 및 훈련, 재교육 및 훈련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5) 보육조례는 보육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구성과 기능, 직무에 대한 명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일년에 한 두 차례의 회의에, 공무원의 보고에 따른 형식적 안전을 단순히 심의하는 정도인 보육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보육사업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수렴한 전문 인력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과반수 보육위원의 안

건 발의 기능 추가, 직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 보고, 상하반기 정례적인 회의 규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

6) 보육조례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의 보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에서 보육사업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융통성 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여러 가용자원에 대한 신속한 자료 조사와 정보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력관리,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보육조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규정이 보육조례에 담겨야 한다.

시·군·구(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에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도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와는 다른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건으로서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수탁자의 선정기준의 제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위탁기간 만료 후 종사자 신분 보장, 위탁기간, 위탁평가에 따른 재위탁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재정보조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사업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유한 시설수나 아동수를 비춰보아도 매우 크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 민간부문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대다수의 보육아동을 위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조례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재정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보육조례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 속에서 좀 더 많은 수의 보육아동과 부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9)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역은 보육사업 예산 확충,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향상,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립 등 장기적인 보육사업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계획의 논의와 수립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동인(2000). 지방의회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방안, 인천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수(2000).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한계, 사회과학연구 제7집 제3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기도(2003).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권영성(1995). 헌법학원론, 법문사
보건복지부(2003). 2003 보육사업안내.
배영길(2000). "조례의 법적 지위-비교법적,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공법학 연구 제2권, 한국비교공법학회
서울특별시(2003). 2003년도 보육사업지침
손난주(2003). 경기도 내 보육관련 조례의 현실과 제, 개정 방향, 경기도 공보육 체계 확대구축을 위한 사업 자료집,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윤관영(1997).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운동의 필요성과 전망", 자치행정연구, 제2호, 전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연구소
하승수(2003)a. "지방자치시대의 보육정책-보육문제 지역에서 해결하기", 경기도 공보육체계 확대구축을 위한 사업 자료집,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하승수(2003)b.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기도 공보육 체계 확대구축을 위한 사업 자료집,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http://www.laib.go.kr/laib/main.jsp> 지방행정정보은행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03.11.2)
<http://legal.metro.seoul.kr/main/html/index.php> 서울특별시자치법규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03.7.20)
<http://www.provin.jeonbuk.kr/law.html> 전라북도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03.8.18)
<http://law.gsnd.net/law/index.html> 경상남도법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최종검색일 2003.8.12)
<http://provin.jeju.kr/index.html> 제주도청 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03.8.12)
<http://www.yeslaw.com/goyang> 고양시청 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03.11.1)
<http://www.hscity.net/hwasung>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 열람 시스템(최종검색일 11.1)
<http://www.pcs21.net> 포천시 홈페이지(최종검색일 11.1)
<http://210.104.121.240/jachilaw-ansung> 안성시자치법규 원문 열람시스템 (최종검색일 11.2)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4)

심선경 · 명예회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우리가 교사들의 자리 찾기를 제안했던 이유는 제목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자리를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처음 모임에서 어린이집의 중심에 자기(보육교사)를 두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에 모두가 순간 당황스러워 했다. 한번도 자신의 위치를 어린이집의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였다.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위한 곳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호받고 교육받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는 것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어린이집에서의 나의 위치를 잊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나?

아 어쩌면, 우리 보육교사들 스스로는 본인을,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이것의 원인제공을 사회가 했건, 스스로가 했건 간에 말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확인들은 몇 차례에 걸친 토론회(?) 동안에 토론회에 참가한 보육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의 환경 나를 둘러싼 긍정적, 부정적 환경에 대해 거의가 긍정적인 환경으로 어린이를 꼽았고, 반면에 부정적인 환경으로는 원장을 비롯한 주임교사를 들고 있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원장이 만들어놓은 어린이집의 환경에 있다고들 하였다.

어린이집의 중심은 어린이가 아닌, 어린이를 핑계로 한 원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측일까?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실제로 이것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조직 내에 있고 그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지도록 하는 것도 원장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위, 원장을 원인으로 꼽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나는 항상 수동적인 존재였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환경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지적한 문제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누가 뭐래도 어린이집의 중심에 자신을 놓을 수 있는 자신감(?)은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 해본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당당한 어린이집의 중심에 놓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모임에서 지적된 것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문제들 중에 어린이집의 운영체계가 지나치게 원장 중심적(원장 마음대로의)이라는 것이고, 원의 운영형태에 따라 화실이 어떤 곳에서는 주임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집 내에 형식화된 직원들(보육교사들)내에 합의된 규칙이나 규율이 부재하고,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원장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공식화된 의사결정구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분명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 못지 않게 보육교사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위치를 정하는 환경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의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다시금 '원장이 안 하는 데.' 하는 탓으로 돌리지 말자. 보육교사들끼리의 합의와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집의 중심에 나를 놓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생각해 보자. 보육교사를, 나를 중심에 두고 어린이집에서의 역할과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 할 것이다.

함께 이야기 할 주제들은 많았지만 시간이 없어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날 그동안 모임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린이집 자모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되었다. 보육교사를 둘러싼 주요 환경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서 부모의 위치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보육교사들이 부모를 하나의 환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는 공동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약하기 때문은 아닐지?

마지막날 아쉽게도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을 함께 한 사람들끼리 오붓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모임에 대한 평가와 느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달에 한번 만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모임을 통해 나 스스로가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 동료와 이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나 개인만의 느낌이 아니라 동료 보육교사도 함께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에 무지하게 기뻐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교사들과,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좀더 자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임이 변화의 과정이 되고 확산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보육교사들에게 더 슬픈 것은 새로운 대안을 볼 수 없는 현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현실인 것 같다.

사실 이번 모임은 처음부터 구성원이 너무 적고, 너무 바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더 큰 한계는 모임을 주도하는 이 주도자의 자기 반성,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했다는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임은 교사들의 자리찾기를 위한 첫 운을 떠었다는 것과 이러한 주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둔다.

우리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담당하고 있고, 스스로의 젊음의 모두를 걸고 어린이집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보육교사들의 위치는 중심에 놓여야 하지 않을까?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말자. 언제나 당당하게.....

그랬을 때에만이 자신의 미래가 보이고 무엇이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이 모임의 지속을 제안하고 싶다. 좀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하나의 실험집단을 꾸려서 조금 긴장감 있게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이것의 극복을 위한 방법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모임으로 된다면 더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이것의 과정이 교사들의 자리찾기, 실질적인 교사들의 empowerment가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언제 한 번 술이나 합시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과 아동의 평화를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활동보고서

1. 시설 소개 및 활동 배경

썩썩어린이집은 민간비영리시설로 현재 27명의 아이들과 3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연령혼합보육을 하고 있으며 오전과 오후에 각 1시간 가량 분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3명(깍두기반), 7세 6명, 6세 3명(큰피반), 5세 8명, 4세 3명(푸른들반), 2, 3세 4명(맑은샘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교사에 대한 호칭은 '00이모'입니다.

지난 6월 깍두기와 큰피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저로 바뀌었습니다.

6월부터 새로 아이들을 맡게 된 저는 아이들을 관찰하던 중 자유놀이 시간 등에 큰 아이들이 힘으로 놀이를 주도하고 그로 인해 어린 동생들은 자신의 요구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남자아이들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싸움이 빈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활동 중에 비폭력에 대해 강조를 하게 되었고 마침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제안이 있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깍두기와 큰피반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기간은 7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하였으나, 그 기간 안에 2박3일간의 들살이(캠프), 실습생 연구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활동기간은 약 10일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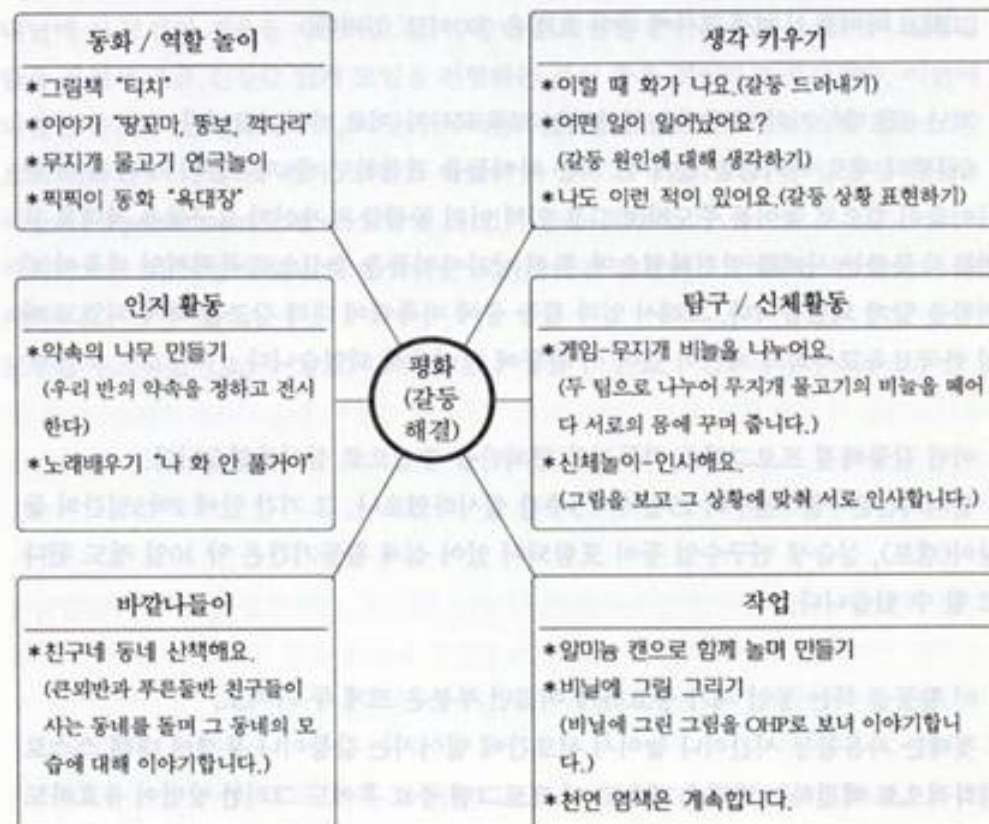
첫째는 자유활동 시간이나 놀이시 서로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스스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그러한 방법이 유효하도

록 하는 것,

물체는 깎두기와 큰외반의 해결 모습을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2. 활동계획

기 간	2003년 7월 2주~4주(7월 7일~7월 26일)	담당교사	이경녀
활동주제	아이들과 평화를 이야기하자—아동과 아동의 평화를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활동목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 갈등상황에서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안다. 어린이집에서의 갈등 상황을 줄이고, 아이들이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활동 내용 및 평가

1 활동주제: 갈등 드러내기

이럴 때 화가 나요

● 활동형태: 대집단활동, 개별활동

● 활동목표: 갈등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표현 할 수 있다.

● 활동방법:

1. 이야기 나누기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이럴 때 화가 나요."
2. 그림으로 그리기
3. 아이들이 그린 갈등상황에 대한 그림을 발표하고 갈등상황에 있을 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윤지: 누가 장난감을 부수고 인형을 뺏을 때 기분이 나빠요.

유빈: 나는 정빈이가 내가 만든 집을 부셔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다시 정빈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부수면 엄마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이르면 화가 풀어지니?) 아니요, 그리고 또 다시 정빈이가 부수면 내가 정빈이 얼굴을 때려요. 그러면 정빈이가 울어가지구요 엄마한테 혼나가지구요 빠져요.

민정: 민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내가 바꾸자고 하는데 안 바뀌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기분이 속쓰러웠어요.

보람: 성윤이 형아가 잘 때 우리 둘이 주먹으로 때리고 엄마가 화가 난 것을 성윤이 형아가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땠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냥 자버렸어요.

달순: 언니가 나를 때렸어요. 화 났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럴 때 기분이 나빠?) 나쁘다. 엄마한테 일렸어요. 그래서 그대 탔어요.

채석: 날 때리고 발로 찰 때, 집을 지을 때 만들어 들어갈 때 애들이 부수고 다시 만들어서 들어갈 때 애들이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부수고 다시 또 집을 지우고 그 때 화가 나요. (그거는 너가 안 시켜서 그렇지) 내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지붕을 부순단 말이야. (그것은 애들이 놀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야.) 그럼, 시켜달라고 말을 해야지.

은희: 나는요 공부할 때 기분이 나빠요. 애들이 떠드니까요. (자기 얘기를 안

1) 아이들의 이야기 중 관호 안의 많은 교사가 다른 아이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끼어들기를 한 것입니다.

들으니까)

희수: 엄마가 나 밥 먹을 때 살살 때리는 게 기분 나빠요. (너가 밥 조금 먹어서?) 아냐, 나 밥 조금 먹지 않았어. (네가 엄마 말 안 들었니?) 조금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아냐, 밥이야 밥! (근데 아이들이 왜 내가 화가 났는지를 잘 모르는 거 같아. 나도...) 밥 잘 먹었는데 살살 때렸다고요.

종현: 채석이가 형아가 때릴 때 화가 나요. (언제 때렸는데 내가?)

● 활동평가

이번 활동에서는 아이들의 갈등 상황과 그 때의 느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갈등이 꼭 싸움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먼저 좋지 않은 감정이 들 때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때에 대해 염색한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은희는 습사리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도 했으며 보람이는 자신의 갈등 상황을 다른 형아를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또 이번 이야기 나누기의 경우, 교사의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지 못해 아이들은 '씩씩이에서의 갈등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화가 나는 경우에 대해 표현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벌어진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엄마가 자기를 귀엽다고 어르는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희수의 이야기-엄마는 희수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교사의 얘기에 희수는 살살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 않느냐며 귀여우면 안아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다시 되물었다. 예 교사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또는 애정의 표현으로 하는 행동에 아이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과 교훈을 얻게 되기도 했다.

또한 표현 방법에 있어 단순히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으로 연결시켰으면 보다 아이들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 활동주제: 갈등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활동형태: 이야기나누기, 개별활동

● 활동목표: 갈등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림자료: 갈등상황 그림자료를 인쇄하여 활용한다.

● 활동방법:

1. 그림을 보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비닐 종이에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3. 그림자료를 OHP로 보며 갈등의 원인에 대해 아이들이 발표한다.

● 활동내용 및 평가

그리기 처음에는 비닐이라는 재료와 OHP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이 되지 않았으나 곧 아이들의 발표내용에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보였다.

또한 아이들은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육교사가 '우리들은 왜 싸울까, 화나게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윤지: 내가 꽃인형을 놓고 있는데 언니가 빼앗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언니도 놓고 싶은가 봐요.

민경: 애는 키가 크고 애는 기 작다고 놀려요. 서로 키 재보자고 하다가 싸워요.

보람: 엄마가 화장실 갔을 때 박치기했어요. 지원이가 잘 안보여서요, 지원이가 떠들어서요.

승현: 다른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꿈속에서 괴물이 됐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난 아무것도 잘 못 한 게 없는데... 기분이 화가 나고 짜증나게 됐어요, 그래서 군인, 용, 사람이하고 변하는 괴물이 되었어요.

채석: 형아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형아들이 많이 시켜주다가 안 시켜줘요. 재미있어서 남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희수: 6살 때 지금은 7살이다. 임채석이 먼저 엽기토끼 댄스 가지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빨리 와서 놀았는데 임채석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싫다고 했어요, 계속 달라고 해서 화났어요.

수정: 내가 인형집을 만들고 있는데 언니가 집을 부숩니다. 내가 언니 시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뺏아서 그랬어요.

유빈: 애는요, 다리가 길다고 동생한테 잘 돌봐 주지 않고 다리가 짧다고 댄스

맨날 놀려요. 자기가 키가 커서요.

보람: 내가 할 수 있는데 등근나라 애가 못한다고 뺏어 가는 거예요. 수영판을
요. 내가 수영판을 잘 못해 가지고 뺏어가요. 좀 속상했어요.

달순: 둘이 공놀이하고 있는데 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찾아오는데
맨날 동생한테 공을 안 돌려줘요.

■연계활동1 - 동화 <땅꼬마, 뚱보, 꺾다리>

활동목표: 반에서 놀림을 당하는 아이의 마음을 치료해준다.

놀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활동방법: 낮잠 시간에 들려주었다.

활동평가: 오전에 회수가 달순이를 놀리는 일이 있었다.

달순이는 썩썩이에서 자유놀이 시간에 묶은 머리를 풀어 귀신처럼 보이게 하
거나 만성비염으로 인해 누런 콧물이 콧속에 가득해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 놀
림을 받게 된다. 특히 회수는 달순이와 옆에 앉기도 싫어하고 종종 달순이를
괴롭히는 모습이 보인다.

낮잠 자기 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우리도 이야기에서처럼 누군
가를 놀리는 사람에게는 "바보야!" 라고 불러주기로 하였다.

오후에 회수는 다시 달순이의 놀이를 방해하였고 달순이를 놀려 한 차례 아이
들에게 "바보야" 소리를 들었다. 물론 이것은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회수는 자기도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한다며 자기가 놀릴 경우 달순이
의 기분이 어떠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달순이가 싫다고 한다.

이런 경우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수의 감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하지만 달순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10월 요즘
은 회수와 달순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렸고 지금도 회수는 달순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괴롭히거나 놀리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
는 회수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고, 달순이에게는 위로와 자신감을 넣어주려
고 했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어른보다 열려있는 마음
이 성장하면서 사람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 많은 변화를 갖도록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3. 활동주제: 갈등 상황 표현하기

나도 이런적이 있어요

● 활동형태: 대집단활동

● 활동목표:

1. 자신이 겪었던 갈등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갈등의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그림자료: 그림자료를 인쇄하여 코팅한 후 찹쌀떡을 붙여 동화를 만들어 사용한다.

● 활동방법:

1. 찹쌀떡이와 부직포를 이용한 동화를 들려준다.
2. 00이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갈등상황을 이야기한다.
3.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했는지 유아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4.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며 갈등해결이 평화적으로 이뤄진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들과
함께 격려해 준다.
5. 앞서 다른 유아가 발표한 갈등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이야
기한다.

"영식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에

유빈: 아기 때부터 막 발로 차고 욕해서 커서도 욕하는 것 같아요.

윤지: 기분 나빠서요.

보람: 자기랑 놀기 싫다고 해서 친구를 때리고 그러는 거 같아요.

채석: 집에서 신경질이 막 나가지고 유치원에 와서도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윤지: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나봐요.

교사: 그럼, 너희들은 집에서 혼나고 썩썩이에 오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 사이좋게 지내지요. 이모 말도 잘 듣고.

교사: 그럼 혹시 친구들이 모르고 지나다가 너희들에게 뽕 부딪히면 너희는 어
떻게 했니?

윤지: 언제요 동생들이랑 뽕 부딪혔는데 그냥 가 버렸어요.

달래: 민주랑 계단을 올라가다 부딪혔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보람: 애가요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하면서 뽕 때려버렸어요.

교사: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연극을 해 보자. 채석이는 때리는 아이, 은희는
맞는 아이, 회수는 선생님.

채석: 아! 너 아프냐?

은희: 난 잘못 없어.

채석: 니가 잘못 했잖아.

은희: 니가 먼저 잘못 했잖아.

채석: 야! (때리는 시늉을 한다)

은희: 선생님! 채석이세요 때렸어요

희수: 야! 왜 장은희를 때려? 뭘때매

채석: 선생님은 왜 때려요?

희수: 니가 장은희를 때렸잖아요.

채석: 선생님도 때렸잖아요.

희수: 니가 말 안 들으니까 때렸지.

윤지: 애 때문에 세 명이 다 기분이 나빠졌어요.

● 활동방법 :

그림동화를 들려 준 후 그와 유사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 아이들은 그 상황을 피하거나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연극을 해 보았다. 채석이는 왜 때렸느냐는 선생님의 물음에 선생님도 자기를 때리지 않았느냐는 답을 했다. 보통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처벌을 가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는 친구를 때리거나 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연극을 보며 나 역시 뜨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내가 아이들에게 내리는 처벌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극이 끝난 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극은 '미안해' 라는 한 마디에 아주 싱겁게 끝이 나버렸고 그 다음은 아이들의 배고프다는 아우성에 활동이 중지되었다.

4. 활동주제 : 갈등 해결하기

약속의 나무 만들기

● 활동형태 : 대집단활동, 개별활동

● 활동목표 :

1.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갈등의 대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 그림자료 : 그림자료 1, 7-9

● 활동방법 :

1.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듣는다.
2. 서로 주먹질을 하기 전에 싸움을 피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이야기한다.
3.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갈등해결 대안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4. 유아자신의 대안을 발표한 후 우리 교실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벌어진 후에 어떻게 할지 '우리 반의 약속' 을 정한다.
5. '약속의 나무' 를 만든다.

● 활동평가 :

며칠 전 아침 산책에서 주워 온 나무를 한지로 꾸민 후 이야기 나누기에서 모아진 우리들의 약속의 내용을 그린 종이를 붙였다.

약속의 나무에 붙여진 우리들의 약속은

- ① 친구를 때리고 싶을 때는 이모나 형아, 언니와 팔씨름을 한다.
- ② 싸우려는 친구에게 종이를 주고 주먹질을 하라고 한다.
- ③ 장난감을 갖고 놀 때에는 먼저 노는 친구에게 가져가도 괜찮은 지 묻고 안 된다고 하면 기다린다.
- ④ 친구들이 싸울 때는 우리들이 용원을 해 주어 웃음이 나와서 못 싸우게 한다.
- 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 ⑥ 아침에 씹씹이에 들어오면 이모와 친구들을 안아준다.
- ⑦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속의 나무를 잡고 다시 약속을 잠깐 생각한다.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처음에는 '이모방에 보내서 돌이 풀고 오게 하자, 통침을 주자, 손들고 서있게 하자, 며칠간 장난감을 못 갖게 하자' 등 과거에 아이들이 겪어 봤음직한 '벌' 을 얘기하거나 그 '벌' 을 더 강하게 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처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육교사가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싸움을 소강상태로 만들거나 다른 쪽으로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 아이들과 만든 약속 중 대부분은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의 상태를 환기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벌어질 폭력적인 싸움에 대해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대체 방법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아이들이 '싸움' 하면 '벌' 을 받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어 '벌' 이 아닌 우리 스스로 싸움에 대해 해결해 보자는 교사의 얘기에 '서로에게 벌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생각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개별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미 아이들은 평화적인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

윤지: 장난감을 준다고 하면 싸움을 안 해요.

채석: 한 번씩 놀고 금방 돌려줘요.

유빈: 인형을 갖고 있는 친구하고 바꾸거나 시켜달라고 해서 놀아요.

채석: 안 시켜 주면?

종현: 선생님한테 일러요.

유빈: 기다리면 되잖아. 그리고 인형을 남자 한 개 주고 여자 한 개를 주고...

채석: 안주면 어떻게 하나?

종현: 서로 서로 나눠가져요.

윤지: 시간을 정해서 바꿔주세요.

유빈: 바뀌가면서 놀아요.

윤지: 돌이 짝지어 가워, 바워, 보를 해요. 그래서 진 사람이 먼저 놀고 이긴 사람이 나중에 놀아요.

종현: 아냐, 이긴 사람이 먼저 놀아야지.

윤지: 진 사람이 먼저 해도 돼.

■선택활동(04. 역할놀이영역)

공주 드레스 두 벌, 어린 드레스 한 벌, 한복 한 벌, 구두 두 켤레, 소꿉놀이, 스키프, 가방 등 배치

활동평가:

처음 역할놀이 영역에 공주 드레스와 뽀족 구두를 내 놓았을 때에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하루 종일을 그 주변에서 싸움과 울음을 그칠 줄을 몰랐다. 교사의 회의에서 분쟁의 원인인 드레스와 구두를 없앨까도 고려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먼저 드레스를 입은 친구가 드레스를 벗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서로 20분~10분씩 시간을 정해 돌아가며 드레스를 바꿔 입고 구두를 갈아 신는 등 아이들끼리 서로 공동의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물론 아이들끼리 약속을 정하는데 있어 보육교사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보육교사는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을 뿐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조정하고 다른 아이들이 지키도록 설득하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4. 총평가

앞서 활동 배경에서 제가 이번 활동에 주목표로 정한 것은 아이들이 서로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스스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그러한 방법이 유효하도록 하는 것,

둘째는 각두기와 큰외반의 해결 모습을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첫 번째의 경우는 본 활동 프로그램이 종료된 현재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서로의 놀이를 존중하고 분쟁 발생시 주먹다툼이 아닌 대화와 -그것이 입씨름일지라도- 서로간의 약속이나 규칙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주드레스 사건(?) 이후 요즈음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블록을 이용한 팽이 만들기가 유행이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교사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결과 팽이 만들기에 필요한 '긴블럭'의 개인소유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좀 더 관찰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여전히 긴 블럭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다른 블록을 이용하거나 팽이만들기를 할 사람들이 모여 똑같이 긴 블럭을 나눠 가지는 등 그날 그날의 상황에 맞춰 서로 융통성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아이들끼리 평화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형들의 모델링을 통해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며 현재는 각두기와 큰외, 푸른들 모두 약속의 나무에 있는 '우리들의 약속'에 대해 모두 찬성하였고 함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갈등해결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생략되거나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본 활동은 시작하기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 교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간단한 보고로 마무리되거나 그나마도 생략되어서 생긴 교사간의 갈등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썩썩이는 혼합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라 어떠한 활동을 분반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나누고 공유합니다. 또 평화로운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얻은 결과들은 일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간의 충분한 공유가 되지 못할 경우 일상활동에서 각 교사들이 일관되게 아이들에게 상호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들의 활동을 동생들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갈등 해결'은 아이들에게나 저에게 매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큰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기에 바빴지, 큰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나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들이 동생들을 소외시키거나 그 아이들의 놀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것들은 교사회의를 통해 문제시되었고 다시 논의하여 아이들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일관된 교사의 입장을 마련하고 씩씩이의 모든 아이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논하여 더 큰 갈등이 빚어지기 전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평화로운 갈등해결 훈련은 단기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보육교사들과, 또 부모들과 충분한 토론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5. 보육현장에서 고민되었던 것들

1) 평화로운 보육환경 만들기

본 활동프로그램에서 연구자는 ① 신뢰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환경, ② 자율성과 가능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 ③ 상호 존중과 상호 의존성을 가르치는 환경, ④ 민주적 삶을 살고 참여하는 환경을 평화로운 보육환경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보육교사가 얼마나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연극놀이에서 채석이가 "선생님도 때렸잖아요." 라고 말한 것처럼 보육교사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교사대 아동비율이 낮아졌을 때 더욱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씩씩이어린이집은 다른 시설에 비해 교사대 아동비율이 낮습니다. 보통 1:20이지만 저희는 각두기들을 합쳐도 1:15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는 1:11이구요.

7월은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육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8월은 보육교사들의 휴가 등으로 교사 한 명당 돌봐야 할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간에 목소리도 커지고 싸

움이 늘기 시작했으며 보육교사는 이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전체 아이들을 함께 통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들과 보육교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후 평화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평화로운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보육교사의 재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함께 지켜야 되는 것들과 개인 존중 사이에서

'전체의 질서 유지와 개개인의 존중', 이는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모든 생활에서 늘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본 활동의 연구자 역시 제안서나 교사가 주의해야 할 것 등에서 아동 개개인의 생각에 응해주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활동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활동프로그램 역시 대집단 활동과 개별활동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다 대집단활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의 개인적인 욕구나 의견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 존중해 주며, 만일 다른 아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요구인 경우 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에게 이 문제는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3) 정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평화로운가?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종종 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재미있는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공주드레스'의 경우 대부분 여자아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옷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블록'에 관심을 보인 남자아이들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보다 긴 시간이 걸렸으며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고 '긴 블록'으로 인한 싸움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작업을 할 때에도 남자아이가 리더인 경우는 그 집단에서 다른 의견은 없지만 별로 창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가 리더인 경우 그 집단은 다른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내고 그 과정과 결과는 앞의 집단에 비해

창의롭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갈등 해결을 위해 이후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게 교육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6. 8월 이후 씩씩이에서는...

올해 씩씩이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즉 인권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10월은 인권보육의 초기라 할 수 있구요.

그래서 요즘 씩씩이는 그야말로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7월에 평화로운 갈등해결 훈련을 실시 할 즈음은 다소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나 어린이집의 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허용되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전보다 많이 드러나고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은 필히 폭력을 동반하구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교사에게 보이면 아이들은 싸움을 멈추고 울거나 교사에게 이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사 보는 앞에서도 서로 치받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싸우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사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지요. 우선은 아이들을 뜯어말리고 싸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니야."로 종료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불러서 다른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의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중재 또는 재판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약속의 나무를 잡고 잠시 진정하도록 합니다.

요즘의 이런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이들의 폭력성이 나날이 정도를 더해가며 어린이집 전반적인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어수선하게 흘러간다는 것이며,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교사 개인의 도덕 기준에서입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갈등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을 잘 넘기고 나면 씩씩이에서도 평화롭게 갈등이 해결되겠지요?

만국기 휘날리며...

가죽 운동회 준비

해마다 10월3일이면 아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반대회를 했었는데 올엔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여 돈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운동회를 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회라면 아이들의 재롱과 아이들 위주의 볼거리를 준비한 것이 고작일 것인데 해맑은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을가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 특성상 부모들이 거의 다 맞벌이를 하는 편이라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자주 낼 수 있는 부모가 적은데 이날만큼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들을 소외시 했던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가족간의 끈끈한 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어린이집 내 부모간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날 운동회 이름도 "아빠, 엄마, 즐겁게 놀아 주세요"로 정하였다.

이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교사들이 모두 준비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준비하는 운동회를 한다면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이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준비위원을 뽑기로 하였다.

마침 체육을 담당하는 교사아빠가 계셔서 총지휘관으로 모시고 3명의 아빠와 1명의 엄마가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어 내용과 준비물 등을 정하였다. 부모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모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날 치러질 내용과 준비물을 점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운동회에 대한 기대감과 참석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즐거운 가을운동회...

준비된 프로그램을 보자면 포대기로 업고 달리기, 아빠가 태워주는 세 발 자전거, 줄

다리기, 이어 달리기, 장애물 경기 등 평소에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해 주지 못했던 것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21가족에 25명 남짓한 아이들이지만 '해맑은'과 '세상' 두 팀으로 나누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휘날리는 만국기 아래 맘을 뽐낼 줄 알고 열심히 뛰었다.

아빠의 넓은 등에 포대기에 싸여서 업힌 아이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가득한 환한 미소가 퍼졌었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뛰어보는 엄마, 아빠들의 표정엔 흐뭇함과 정겨움이 넘쳐나는 것을 보니 10월의 가을하늘이 더없이 청명해 보였다. 아빠들만의 족구 한 판, 처음 얼굴을 보는 아빠들도 있었지만 운동회를 하면서 낯설음이 차츰 친근함으로 변하고 내 아이가 아니라도 같이 뛰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모두들 한마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를 통해 만난 자리이지만 삭막한 속에서 정겨운 이웃을 사귄 듯 모든 가족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넘쳐 나는 듯 했다. 준비한 교구나 참여한 가족 모두들 10월의 운동회를 잊지 못할 것이란 뒤통스 얘기가 오갈 정도였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만국기도 더할 나위 없이 멋져 보이는 가족 운동회였다.

가을운동회를 마치고...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바는 보여 주기식의 행사는 피해야 된다는 것과 교사, 아이, 부모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맑은 가을날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릴 적 운동회가 아닐까 여겨진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랑 즐겁게 뛰놀던 이 운동회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게 되리란 기대를 해 본다.



<어린이집 자모이신 시완 엄마가 카페에 올린 글 중 운동회를 맞이하는 마음과 하고 난 후의 감상을 옮겨 봅니다>

가을 운동회를 기다리며...

오늘 아침 출근하다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파란하늘이었지요. 금방이라도 파란 하늘이 내 품으로 내려앉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일은 날씨는 화창하니 맘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행사만 있으면 심술궂은 비가 내리더니 아마도 내일은 괜찮겠지요. 저는 시완이 체육행사는 처음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만 지금 즐거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어릴 적 초등학교 운동회를 떠올리며 가슴이 설레겠지요. 전날은 운동회 총연습을 하고 밤에 별이 났는지 비는 오지 않을런지 걱정이었지요. 다음날 만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 엄마의 갖가지 맛있는 음식과 동네 아지매들과 마치고 동네 계라도 하는 듯 가방 가득 채우고 학교로 향했지요. 밤이며 고구마 땅콩 등은 빠지지 않는 먹거리지요.

다리기, 장애물 넘기, 여자애들은 부채춤, 강강술래, 부모님과 함께 달리기, 마지막 릴레이까지 조금이라도 더 일등을 해보려고 맨발로 손에는 침도 발라 기합을 넣어보고 출발선에 서서는 또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가만 생각 해보면 1년 중 제일 큰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동네 잔치이기도 하고..

학교 주변으로 둘러보면 정문에는 시장이 선 것처럼 학용품, 장난감, 국밥이며 오뎅, 떡볶이 등 먹거리가 풍성하였지요.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거나하게 약주를 한잔하시고 손주 손녀를 보시며 즐거움에 덩실덩실 춤을 추시지요.

한바퀴 둘러보며 이것저것 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에 눈 구경만 할 뿐...
엄마가 그 마음을 아셨는지 조그만 것 하나 사 주시면 얼마나 좋든지...

저녁 해가 질 무렵 청소까지 다 마치고 나면 어두워서야 고학년들은 집으로 돌아가

죠. 피곤함도 있고 그 날 공책을 몇 권 상으로 받았는지 흐릿한 마음으로 즐거웠죠.

요즘은 세월이 세월인 만큼 옛날 시골의 인정스럽고 풍요로운 운동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오전에 마치고 집에서 점심을 먹거나 학교에서 급식으로 하기도 한다네요.

바쁜 시간 속에 생활을 하다보니 옛날의 그 순수함과 여유와 인정미가 없어지고 모두들 각박한 느낌입니다.

시완이는 오늘 아침 어디서 왔는지 머리와 팔에 끼는 띠를 사야 된다고 아침에 문방구에 다녀왔지요. 시완이 몇 천원 용돈은 자기가 관리하는데 자기 돈으로 사서 아침에 해맑은 세상에 내려줄 때 양파선생님께 자랑하기 바쁘더니 역시 극성스러운 시완이입니다.

아니 적극적인 시완이가 엄마는 좋습니다.

성완이도 그날 친구들이 많은데 설치지 않을런지..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고.....

잠시나마 옛날 어릴 적 운동회를 회상하며 행복에 젖어 보았지요.

내일은 '해세' 가족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음 정말 좋겠네요.

가을운동회를 마치고...

운동회날 날씨가 맑아 정말 다행이었죠.

기대를 하긴 하였지만 그렇게나 멋진 줄은...

전날 성완이 보는 이모네, 숙모네, 고모네 모두 응원하러 온다 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 싸느라 바빴죠.

도시락 10개를 준비하느라 아빠와 시완 성완이는 먼저 공원으로 가고 엄마는 준비가 덜 되어 예쁘게 화장하고 가려고 했는데 게으름이 받쳐주지 않아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서남 공원에 도착하였지요.

별 것 준비한 것 없는데 가방을 양손에 쥔거리며 들고가다 마침 수박 남편과 부딪쳐 좀 들어 준다고 하여 도움을 받았지요.

입구에 들어서는데 해맑은 세상 운동회가 예쁜 모습으로 나무 위에 걸려 있더군요.

와 굉장한데 생각하며 운동장으로 갔죠.

필력이 만국기 정말 상상 못 했었거든요. 예쁘고 대단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하던 운동장이 머리를 스쳐지나가고 애들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들 재롱잔치쯤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오였을 듯...

엄마, 아빠들과 함께 업고 달리고 사탕 먹고 또 줄 달리기(얼마나 힘을 썼는지 손이 아픔)등 가족 모두가 어우러지는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어요.

아빠들의 족구, 막걸리와 두부김치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이 나고...

집에 돌아온 시완 성완은 때국물이 줄줄..

깨끗이 씻지도 않고 피곤하였던지 성완이는 잠들기 바빴죠.

온가족 기념사진을 촬영하였으니 성완이 모습도 남았을테고 조금 더 자라면 형아 운동회에 참석한 이야기를 해 줘야겠어요.

성완이 보는 이모네와 그 가족들은 유치원생 초등학교도 있는지라 여러 운동회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가족모두 단합된 모습, 정성스러운 준비 정말 멋졌다고 칭찬 칭찬을 하네요.

가족 모두 같은 생각 맞나요?

그 날 조금 뛰었다고 온 몸에 몸살이 났는지 육신육신...

다른 가족들은 팔팔한가요?

특히 선생님 어린이들 데리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어요.

광주에서 울려 퍼진 양성평등 목소리

1

김경아 · 광주전남지부 회원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닌가요? 바로 작년에 한국보육교사회 중앙과 각 지부가 함께 펼쳤던 프로젝트 사업이었죠.

올해 광주전남 지부에서는 위와 똑같은 제목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처음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어 10월 11일과 10월 25일, 두 번의 거리문화제를 마쳤답니다.

한 번 경험이 있는 내용의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부에서는 처음으로 펼치는 프로젝트 사업이기에 조금은 긴장되고 부담되는 사업이었답니다.

거리문화제의 내용이 작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간단히 소개해보면요...

‘엄마, 아빠 함께 키우면 기쁨이 두 배’ 글씨를 새겨 깃발을 단 양성평등 자전거 홍보단(자전거 무료대여), 양성 평등을 위해 엄마, 아빠로의 자기 다짐을 적어 나무에 다는 ‘양성평등 다짐나무 꾸미기’, 칼라믹스로 엄마 아빠의 웃는 얼굴 만들기, 가족 사진 판을 만들어 사진 찍어주기, 양성평등의 내용을 담은 그림책 전시와 반쪽이 만화 컷 전시, 양성평등 개사곡 노래공연, 풍물공연, 그림책 슬라이드 동화구연(“돼지책”), 그리고 풍선과 전단 나눠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참 다양하고 재미있었지만 처음의 뜻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행사를 하기 전 인터넷 홍보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타고 또 회원들이 직접 없는 시간 짬을 내서 발로 뛰어다니며 포스터도 붙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루는 장소가 너무 외진 바람에, 또 하루는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공원에 놀러 나온 시민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오 방송을 듣고 왔다면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참여마당을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행사를 마치고 가는 길에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는 한마디 인사까지 챙겨주고 가는 가족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 뿌듯함도 느꼈지요.

또 행사를 정리하는 중에 딸아이 둘을 데리고 공원에서 놀고 있는 대학 남자 선배를

만났는데 엄마가 바빠 일이 늦게 끝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더군요.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 만난 선배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이런 게 그동안 우리가 했던 활동의 결과물이 아닐까요? 흐 뭣 -

“행사 치르기에 바빠서 사전에 회원들과 양성평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 “기획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통일된 옷을 입어 집중된 분위기를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 “좀 더 이른 계절에 했으면 시민들이 참여가 많았을 텐데…….”

매번 행사를 마치고 나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은 어설픈 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모여 아이를 단단하게 들쳐업었을 때의 그 느낌처럼 그 어떤 사업도 아무지게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광주전남 보육교사회 파이팅!!



보육교사 권익상담 교육을 받고...

지연 · 경기도지부 지부장

제대로 복습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교육을 남긴 상태에서 상담교육 받은 소감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니 참으로 막막하다. 거기다 글을 써본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써보고자 한다.

내가 보육교사가 된지도 벌써 13년째인데, 보육교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지부 일을 맡고 가끔씩 걸려오는 상담에 당황스러운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상담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여 너무 기다려졌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즘 나의 일정과 몸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정이 변경되면서 이번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교육의 날이 되었고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전철에 몸을 실어 한 시간 오십 분만에 도착하였는데 너무 지쳐버렸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이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주며 재미있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떠한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꼭 끝까지 이 교육을 다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의 교육 중 세 번의 교육을 받고 마지막 시간을 남겨둔 상태이다. 힘들지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나는 매번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

첫번째 시간에는 보육교사의 권익 관련 법과 지침 중 주요내용인 자격취득, 경력관리, 사회보험관련 근무시간과 휴게에 대해서 교육했다. 그동안 상담을 받으면 몰라서 당황하였던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재미있었다. 또한 법이 우리 교사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교육했다. 근간 내가 보육교사로 살아오면서도 또한 우리의 노조 방향 논의를 하면서도 내가 근로자라는 생각을 잘 할 수 없었는데 막상 근로기준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 속에서조차도 우리의 불합리한 권리를 알게 되면서 내가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보육교사들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상담요령과 도움 받을 곳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했다. 이전 상담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이전 상담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면서 중앙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 교육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을 다 받고 꼭 복습해서 교육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나만 알기에는 너무 좋은 교육이기에 우리 지부 회원들과도 함께 꼭 공부해서 보육교사의 권리를 알 수 있게 해 주어야겠다.

수리산에서 우리는...

윤금주 · 경기지부 회원

10월 12일 경기지부 10월 회원의 날.

늦은 아침을 먹고 소정이 누나를 만난다고 기대에 부풀 수현이랑 전철을 타고 수리산역으로 향했다. 금정에서 경숙샘이랑 소연이 소정이를 만나 도착한 수리산역에는 지연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채혁이랑 영미샘이 도착하고 부천샘들은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기에 택시를 타고 먼저 출발하기로 했다. 택시잡기가 얼마나 힘들던지 두 팀으로 나뉘서 8단지 용진사 입구에서 내리니 먼저 도착한 영미샘은 흥시를 한 바구니 사서 약수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덩달아 한 입 베어보니 확 떼앗아 가는 수현이 혼자 쥐어뜯고 쪽쪽 빨며 한 입만 달래자 확 고개를 돌려버린다(돌아오는 길에 쪽쪽 빠는 감 사달라고 어찌나 줄라 대던지.. 한 바구니 샀다).

교진샘, 양숙샘, 미화샘은 소식이 감감하고 일단 근처를 살펴보기로 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인데 아이들은 장승 입에 돌맹이를 먹이거나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노느라고 나무이야기는 이미 다 안다는 듯 숲을 내달리고 우리끼리만 감탄하며 때죽나무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며 옛날 머슴들이 때죽나무 열매를 찢어서 냇가에 뿌리면 물고기가 떼로 죽어 떠올라서 때죽나무라고 한다는 것부터 떼가 죽죽 밀린다고 해서 그렇다고도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였더라..

옻나무를 개옻나무와는 다르다고 만져보는 선생님들과 떨어져 옻이 오를까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했다. 예전에는 정말 옻나무만 봐도 옻이 오르곤 했으니... 영미샘은 괜찮았는지 모르겠다.

양치식물은 암수가 다르게 나있는걸 보기도 했는데 아래쪽에는 포자가 달려있는 암컷이 위쪽에는 포자가 없는 수컷이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생태체험 나온 학생들을 만나 엽세우랑 개미귀신(명주나비에벌레)을 보는 황제도 재미를 더했다. 개미귀신이 명주나비에벌레라는 것과 밤송이 속에 우글거리던 엽세우는 2급수 이상에서만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굴참나무의 도토리화 도토리모자를 줌느라고 아이들은 바쁘고 자주 보던 잎인데 새

삼 들고 보니 잎 끝이 바늘처럼 날카롭게 죽 나와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제서야 부천 샘들이 도착을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해 산본역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이용해서 왔었다.

부천샘들이 오기가 무섭게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간단하게 간식만 준비해 오라더니 도시락을 거하게 준비해온 부천샘들 더불어 교진샘의 매실주는 맑은 공기 속에서 마시니 신선이 따로 없었다. 교진샘이 얼굴도 초췌하고 다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다니 다들 걱정이 많았다. 빠른 시일 안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한 점심을 마치고 본격 생태체험 실시 물가 쪽에 피어있던 물봉선,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고마리, 곰취나물꽃, 맥문동, 개역귀, 이삭역귀 등 다양한 풀과 꽃들을 보고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를 들고 헛갈려 하다가 경숙샘이 미리 그려온 나뭇잎 그림을 보고 잎이 뽕족한 게 신갈나무(옛날에 신발 속에 깔고 다녀서), 끝이 둥그스레 곡선이 그려진 게 떡갈나무(떡을 싸서 먹었다고 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배려하는 맘이 보통이 아닌 하트모양과 왕관모양의 잎을 가지고 빛을 끌고루 반계금 어긋나게 잎이 난다는 생강나무는 잎을 문질러서 코에 대니 생강냄새가 났다. 부러트리면 국수발 같은 속이 나온다는 국수나무, 분홍꽃이 피어있던 싸리나무, 봄이면 버들피리라도 볼 어뵈을 버드나무도 볼 수 있었다.

맨발로 걷는 길에 이르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신발을 한쪽에 벗어놓고 뛰어다니고 경숙샘 가방에서 나온 직사각형의 거울은 대단한 마술을 보여줬다.

다른 세상을 경험케 하다니.....

코에 거울을 대고 앞사람 어깨를 잡고 숲을 한바퀴 도는데 그 거울에 비친 하늘, 나무 모습들이 새나 지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라. 새나 지네 곤충이 되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거기다 앞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가능한 활동이어서 더욱더 친밀해 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새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비로 인해 허겁지겁 마무리를 하고 뒷풀이를 거하게 하자고 했던만 위낙 점심을 거했던 지라 다음을 기약하며 하산 길에 올랐다. 재미있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고 맛난 걸 준비해가지 못해 사실 미안해 죽는 줄 알았다.

경기지부 샘들! 다음엔 지가 맛난 것 싸 가지고 갈라요. 다음엔 수리산 정상까지 한번 가보자구요 재미난 풀이야기, 나무이야기, 꽃이야기 들려주시고 준비까지 철저하게 해오신 영미샘, 경숙샘 재미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주말 지낸 이야기하면서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생강나무 등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난 척 좀 했습니다.

박물관 나들이 갈래요?

류지민 · 인천지부 홍보부장

눈부신 가을날의 오후,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에 글을 써달라는 영광의 전화였지요. 그때부터 꼬박 2주일하고 하루를 더한 오늘까지 머릿속에 생쥐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예구구...~ 우리 소모임을 소개하는 글인 만큼 멋있게 근사하게 써야 하건만,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땀구리의 팬(?)들을 위하여 끝까지 써볼랍니다.

박물관 모임은 예전부터 있었던 인천지부의 소모임이었어요. 인천보육교사회는 몇 해 전부터 회원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뜨거웠던 소모임들이 잠시 겨울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총회를 거쳐 소모임을 다시 꾸리게 되었지요.

박물관 소모임에는 우리 옛 유물들에 관심이 많고,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유산지를 좋아하는 -쉽게 말해서 돌아 댕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순, 김원희, 류지민, 고경애 선생님. 이렇게 4인방이지요.

3월 17일 첫 모임을 가지면서 가입조건과 역할분담과 회비와 모임을 정했습니다.

소모임장(류지민), 총무(이순), 자료수집(김원희, 고경애, 이순), 기록자(류지민), 교통편(류지민), 사진(고경애)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고, 모임은 월 1회 견학과 회의를,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했습니다. 또한 견학 갈 때 아이들 동반이 가능하고, 회원 아닌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박물관 소모임의 첫 나들이는 화창한 5월에 인천 시립 박물관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토기 하나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생각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유물을 봐도 그 쓰임새와 가치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역사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소모임에서 작은 책도 하나 구입했어요. '박물관 이야기' (저자 현윤애)라는 책인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물에 대한 설명을 조목조목 해주었거든요.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통일신라전'을 볼 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매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매 시간 30분마다 각 전시실

별로 박물관 안내 자원봉사자가 있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잘해줍니다. 18개 전시실을 한번에 다 보고 오려고 하지말고 오랜 시간을 두고 서너 번 다니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간송 미술관은 연 2회 5월과 10월에 정기전시회를 하는데, 5월에 있는 '근대 회화 명품전'을 갔었어요. 최민식이 열연했던 영화 장송엄마 아시죠? 장송엄마, 김은호, 조석진 등의 그림들을 보았지요.

6월에는 수원 화성을 갔는데, 도시 속 자연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인터넷을 보면 화성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미리 사전 공부를 하고, 직접 가서는 나름대로 맘껏 느껴보세요. 화성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앞에 붙여진 설명을 읽느라 제대로 보고 만지고 느껴보질 못 하더라구요.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 서남암문에서 서남각루까지의 잔디밭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 봉돈부터 연무대까지는 고운 흙길로 되어있구요. 이곳을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에 닿는 그 보드라운 느낌이란!!

화홍문에서는 수원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의 물놀이는 우리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빠지게 했지요.

수원화성의 추억을 잊지 못해 7월에 한번 더 갔었어요. 실은 김원희 샘과 여진이를 못 보여준 게 못내 아쉽더라고요. 어린 여진이는 힘들지도 않은지 4시간에 걸친 화성을 씩씩하게 잘 걸어다녔어요.

아, 화성을 갈 때요, 수원지부에 미리 연락해서 함께 가는 것도 좋아요. 회원들끼리 얼굴도 보고, 안내도 받고, 좋잖아요~

박물관 소모임을 하면서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여기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도 얻곤 하지요.

9월부터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주최하는 박물관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에 하고, 현장답사도 가는데 이번 주제는 '불교미술의 이해'라고 사찰과 사원, 범종, 불상에 대한 공부입니다. 원래는 이 교육을 박물관 소모임에서 전체로 다 받아야 하는데, 밀려난 소모임장 만이 빠져버려 다른 샘님들께 미안하고, 개인적으로는 속상하고 그렇답니다.

하늘도 맑고 날씨도 좋은 이 가을, 단풍이 제법 예쁘게 물든 종묘나 경복궁으로 주말 나들이 가보세요. 우리 궁궐 지킴이(궁궐 안내 자원봉사자)들이 재미나게 안내도 해줍니다.



경주에서의 좋은 만남 그리고 결론, 한국보육교사회 최고! 부산 열심히 하이소!

김정자 · 대구지부 회원

한사랑어린이집이 장애법인이 되면서 2층 새 집으로 이사한 뒤, 하반기 통합교육의 출발을 디딤, 한사랑의 1박 2일 생활교육캠프로 시작한 9월 26일.

한사랑 샘들의 새 집 자랑이 부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생활캠프를 이유로 디딤 아이들과 함께 찾아간 한사랑... "집 좋네 ~" 달랑 한마디. 뒤에 오던 정민이가 한마디 "우와 디딤보다 더 좋다, 맞제! 소민이 언니야 ~"

옆에 있던 소민이의 한마디 "야! 정자선생님 듣는다! (나를 의식하며) 나는 디딤이 훨씬 좋다 ~"

자원활동가들이 도착하면서 모둠 짜고, 일정 점검하고, 바로 모둠별로 시장보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윤문주 선생님은 "에이~ 같이 갑니다. 부끄럽잖아~ 혼자자는 영~" 하며 무지 귀찮게 쫓아 다닌다.

"나이가 몇 살인데, 부끄럽까지 타고.. 됐데이~ 혼자 가이소~" 하며 무시하기를 여러 번, 그래도 대구지부장인데 혼자 보내려니 안쓰럽기도 하고, 못 미덥기도 하고 결국, "애들 저녁 먹이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경주로, 그것도 무지 재미있는 생활캠프를 포기하고 윤문주 샘과 동행하게 되었다.

7시 30분에 출발했으니... 도착하면 첫 강의는 벌써 시작했을 건데... 중간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아니면 혹시 끝났을지도 모르지... 에이, 꼭 듣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밖에서 좀 놀지 뭐! 둘이서 궁시령 궁시령... 휴게소에서 우동과 김밥까지 먹고 느긋하게... 혹시 일찍 도착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죄송)

드디어 경주 황토방 민박에 도착.

그런데, 이럴 수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강의라니!

"부부세요?" 라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까지 들으며 경주에서의 첫 날 시작.



한 달 전, 중앙과의 간담회가 전부였던 대구보육교사회 회원으로서 상급단체 논의와 조직원의 범위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며, "왜 우리만 몰랐지?" 라는 소외감과 "다른 지역은 벌써?" 라는 부러움 그리고 "역시 한국보육교사회는 대단해!" 라는 자긍심 등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둘이서 끙끙대며 잘 안 쓰는 머리를 좀 쓰고, 내친김에 눈 옆에 서의 술 한잔으로 오늘 하루는 끝.

세상에! 전세버스에 가이드까지 함께 해서 경주관광을 한단다!

경주에서 꽤나 유명한 황토방 민박도 상상할더니...

"총과 농의 차이를 아세요?" "신라시대의 풍수는..."

그렇게도 경주에 자주 왔었는데, 처음 듣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부끄럽고 민망해서... 디딤 애들한테 내 맘대로 설명한 게 무지 미안하네...

감포 관광을 빼먹고... 오후의 "간부론" 강의.

지금까지 왔었던 길이었지만 다 잊어버렸던 길을 다시 찬찬히 정리하는 시간!

마지막 "조직전설의 로드 맵" 강의.

"이전에는 마인드가 유행하더니 요즘은 로드 맵이 유행인가?" "우리 말을 써야지!" 라는 웅성임 속에서 시작 된 강의의 첫 느낌은 "아이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대구는 상관 없네..." 이후 이윤경 샘과의 토론 이후 "아이고! 할 일이 진짜 많네... 부산 잘 하고, 대구도 잘 해보자!"

일요일 자원활동가들과의 비슬산 산행이 있어서 토요일 밤 늦게 돌아오는 길.

홍분한 윤문주 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대구가면 회원들 교육부터 하고, 계획도 같이 잡아보고, 빨리 부산지부도 한번 가봐야지... 이번 수련회 진짜 좋다!"

홍분한 나 "대구모임부터 잡고!" 다음 주 목요일, 명예회원들 연락하고 "안 샘, 로사 샘..., 부산 빨리 가봅시다! 언제 갈래? 날짜 잡자!"

그리고 함께 외친 말 "한국보육교사회 진짜 대단하다! 부산 열심히 하이소!"

끝으로, 꼼꼼하고 알찬 수련회 준비하신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가을 여행

이정인 · 부산지부 회원

3일전, 2일전 드디어 오늘....

아침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처음 가는 여행처럼 가슴설레이는 이런 기분은 아마도 나이가 더 들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가겠다고 아들 녀석은 무슨 변덕인지 오늘 아침엔 혼자서 집을 보겠다고 트집을 하는데..... 500원에 아들과 흥정을 해서 겨우 같이 가기로 결정하고 내집이랑 아들 집이랑 하나하나 챙기고, 짐을 챙기는 내 마음은 벌써 경주로 가 있었다.

저녁 8시경에 어미새 2마리에 새끼새 4마리를 코보차에 싣고 드디어 경주로 출발했다.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새가 빠지게 달리는데 우리의 새 2마리가 어찌나 잔소리가 많던지 성질 같아선 고속도로에 내려두고 가고 싶었지만 새끼새가 붙박해서 참았다.

드디어 경주에 도착!!!

황토집을 물어 물어 도착해서 그날은 대충 저녁을 차려먹고 천년고도 경주를 배개삼아 잠을 청했다.

새벽에 잠이 깨었다.

샤워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어젯밤에 도착한 황토집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정원이며, 집안 가득한 여러 가지 소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재물을 다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눈 가지 않는 곳이 없고 하물며 풀 한 포기에도 운치가 있어 보였다.

특히 정으로 만든 벽시계는 흠치고 싶을 만큼 욕심이 생겼다.

아침밥을 먹고 난 뒤 경주탐방이 시작되었다. 몇 번 와본 경주지만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하는 여행은 또 다른 경주를 느낄 수 있었다.

무수한 전쟁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천년고도 경주는 옛 조상들의 예술성과 섬세함, 독창성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던지는 것 같다.

천마총과 대릉원을 거쳐 괘릉, 불국사로 이어지는 우리의 발길은 오랜만에 찾아본 여유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배놓을 수 없는 것은 문무대왕릉을 바라



보며 백사장에 앉아서 까먹었던 삶은 계란에 사이다맛은 소풍 나온 초등학교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아이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 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장난기 발동한 선생님은 패트병에 물 한 가득 담고선 여유롭게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한다. "아" 나 어른이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이다.

감은사지 절터를 뒤로 한 채 경주사람들의 식수원인 아주 큰 저수지를 돌아서 아직은 조금 이른 가을 하늘과 산을 보았다. 태풍 매미가 경주를 슬쩍 건드리고 갔는지 큰 나무들이 몇 그루 맥 없이 쓰러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청춘 남녀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들이 보인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다.

저녁에 교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나는 왠지 걱정이 많이 된다.

교육이 끝나고 뒷풀이가 있었는데 부추전에 골뱅이무침에 하여튼 푸짐한 음식에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점점 이 밤도 깊어가고 있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한창이다.

멀리서 온 서울지부부터 출발을 하고 광주지부 사람들은 경주시내구경을 하고 간단다. 부산지부 샘들은 빨리 부산으로 가자고 한다.

이렇게 나의 참 오래간만의 경주여행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부산으로 출-----발-----

못다 한 말 >>>

매 식사때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생하신 집행부께 감사드리고, 특히 정수생의 커피맛은 일품이었다고. 또 식사때분 잘 못해서 깊은 밤 홀로 다시 장을 봐주신 미경생 남편께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쉬는 마당 >>>

코보차를 타고 경주에 간 새 2마리는 누구일까요??

1. 참새 + 하늘새
2. 하늘새 + 파랑새
3. 파랑새 + 까치
4. 까치 + 참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부산의 코보어린이집으로 연락하세요. 선착순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육아도우미로 함께 하면서

김호연 · 부산지부 회원

☞ 아이들과 만나다

아이들은... 민박집의 강아지와 친해져(?) 저녁 먹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우르르 몰려다니며 온통 관심이 그곳에만 가있다. 아이들끼리 어색함도 없는 게 참 기특하다.

☞ 마을산책

저녁을 먹고서 아이들을 마당에 불렀다. 준비된 아이들 명단으로 이름표를 나눠주니 목에다 걸고서는 조이는 아이, 자기 이름 아니라며 도로 주는 등 한바탕 수다가 이어지더니 그래도 인솔교사 이름이 궁금한지 한 아이가 묻는다.

"이름이 뭐야?"

- 난 김호연. 천둥번개라고 해. 그리고 저 분은 황호정 선생님. 그리고 호호엄마라고 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는 다른 아이들 무리로 달려간다. 이름은 들긴 들었을까? 그때 아이들 틈으로 들어가며 아이가 "천둥번개래.. 우헤헤 이름이 호호엄마래.. 히히 웃는다!!"

아이들 틈으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마을 산책은 어떠냐고 하자 한 두 놈 빼놓고는 다들 벌써 대문 밖을 향해 달려가며 나선다. 어두운 길에 손전등을 들고 가려 하자 자기들이 들고 간다며.. 그러면 안되냐고.. 어떻게 할까? 하니 아이들 가위 바위 보에 내가 몇 살이네.. 한참을 실랑이하던니만 결국은 돌아가며 한다고 결론을 낸다. 그제서야 출발. 민박집에서 조금 멀어지자 작은 아이가 졸린 지 잠투정이다. 업어주니 등에 기대는 품이 졸린가 보다. 별따기 노래하며 큰아이들과 이야기하며 가다보니 벌써 한참이나 멀어져 있고 주위도 캄캄 별이 밝다. 아이들 감탄에 그리고 교사들이 한술 더 뜬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별들이.. 쏟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아이 "우와--달을 것 같애."란다. 정말 달으면 뜨겁다고 하니 "호-불면 돼. 그것도 몰라?" 안되는 게 없는 아



이들이다. 인공눈 스프레이와 손전등으로 아이들과 잔치를 벌였다. 여름밤의 손전등 불빛 사이로 떨어지는 인공눈도 아이들마다 한번씩 돌아가며 하는데.. 날려서 눈에 들어갈까 교사를 걱정인데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온몸으로 눈 맞기다. 한참을 그러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등에서 잠잠했던 아이는 벌써 꿈나라다.

☞ 밀가루 놀이

아이들은 저녁 마실에서 다녀오자마자 호호엄마가 준비해둔 밀가루를 반죽하기 위해 자리 하나씩을 차고서는 제법 진지하게 반죽을 하는데.. 어른들은 치울 일이 걱정이다. 하지만 물을 섞어서는 찰찰 늘어나는 밀가루 보며 깔깔깔 얼굴에 밀가루 날려 묻은 걸 보며 또 깔깔깔.. 아이들이 눈부시다. 반죽이 다 된 아이들 이것저것 땀도 곰도 콩도 눈사람이다 뭐다 해서 만드는데 한 아이가 만들어 놓은 왕만두가 재미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줄까?"라며 세심하게 과정 과정의 노하우를 설명해준다. 정말 왕만두다. 밀가루 놀이가 끝날 무렵 아이들 옷이 엉망이다. 샤워하러 들어간 아이들.. 감기 든다고 얼른 하려는 교사 말에는 아랑곳없이 또 한참을 수다.. 이불 깔아 놓으니 아이들 눕자마자 쿨~ 요주의 몇 놈은 눈이 말뚱말뚱해서는 무서운 이야기해 달라며, 우리 몇 일 밤 자고 가냐며 피곤하니 얼른 자자는 교사의 말은 못 알아 들은 건지 수다에 수다.. 한참을 이야기 하는데 아이들 꿈나라다.



경주 일꾼수련회 육아도우미로 애쓰셨던 두 분. 왼쪽이 황호정 샘, 오른쪽이 글을 쓰신 김호연 샘이다.



부산보육교사회와의 인연

하연주 · 부산지부 간사

바람이 제법 차졌다. 가을인가 싶더니 금세 겨울이 되려고 한다.

올해는 봄도 짧고 여름은 죽 밀려나고 대신 새로운 계절로 '장마'가 위풍당당 등장했다.

여름내내 이 사무실은 왜 그렇게도 더웠던지, 지금은 왜 이리도 추운지, 음미하듯 천천히 보내고 싶은 가을은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사무실에서 일한 지 이제 넉 달. 나 여기서 상근을 한다. 정확히 말하면 반상근. 열두시 쯤 출근해서 남들 갈 때 집에 간다(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간다).

원고 청탁을 받고 나서 꽤 걱정했다. 머리가 좀 아팠다. '뭘 쓰라고, 하는 게 있어야 쓰지, 이제 겨우 분위기 파악 좀 되려고 하는데.' 미루다 미루다 한번 더 임정수 샘한테 독촉전화(?) 받고 마감 전날 밤에 펜을 들었다.

내가 어쩌다가 보육교사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처음 나는 어린이집 자원봉사를 했다. 아이가 좀더 크면 어린이집 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면 지금부터라도 일도 좀 배우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디 자원봉사라도 할 만 한데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아이아빠한테 부탁했었다. 둘 조금 지난 보경

이를 업고 매일 매일 어린이집에 갔었다. 아이 낳고 계속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참 좋았다.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린이집과 좀 멀리 이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나갔는데 한 3년쯤 한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



이 보육교사회 가입을 권유했다. 현장에 있는 교사도 아닌데 어디 소속이 되는 게 좀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일반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회비를 열심히 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던 중 올 3월 쯤에 부산보육교사회에서 상근자를 구한다고 했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를 구한다고 했다. 일단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해볼 건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시간제 보육일을 택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쉽게도 3개월 정도에서 접게 되었다.

그즈음 부보회에서 다시 상근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일할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육교사회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아이를 데리고 멀리서 다니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어 특히 아이한테 미안해서 아예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했다. 덕분에 아이아빠는 출근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

사실 내가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터라 걱정도 많이 하고 알게 모르게 긴장도 꽤 했는데 회장님도 많이 가르쳐주고 사무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잘 도와주어 이제는 제법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컴맹인 내가 처음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타자연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간간이 문서편집과정 등을 배우러 다녔다.

요즘에는 보육조례제정 때문에 좀 바쁘다. 실은 마음이 더 바쁘다. 물론 우리 회장님은 몸도 마음도 다 바쁘다. 문득 문득 조례제정 때문에 '5만 3천명 서명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다 못 받으면 어쩌지, 다 받아야 되는데...' 하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든다. 어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신분노출이 불안한 세상에 길거리에 서 처음 본 우리를 믿고 주민번호까지 열심히 적어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육조례는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솔직히 나는 그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 사무실에는 부보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같이 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도 나에게겐 복이다. 人福이다.

요즈음 가끔씩 2, 3년 후의 내 모습을 그려본다. 계속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을지 또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아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인 부보회와의 인연은 그대로 일 것이다.

{ 2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이들 곁에 계시는 유호순 선생님! }

이명숙 · 명예회원

일상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원고 독촉을 받고 토요일의 일과를 다 제쳐두고 어린이집을 나섰다.

초겨울을 재촉하는 비로 스산한 날씨에 낙엽이 수북히 쌓인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 민들레 놀이방 문을 열었을 때 86년 송림동 산동네에 처음 어린이집일을 시작하고 의욕이 넘쳐서 민들레를 찾아갔을 때 푸근하고 여유롭게 아이들과 함께 계시던 그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셨다.

차려주시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커피잔을 들자 "누구든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있겠지만 나는 전문인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 하시면서 말문을 여셨다.

74년 서울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사립유치원 미술학원 등에서 일하다가 81년 인천에 내려와서 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에서 운영하는 민들레 선교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노동자들의 모습, 해맑은 아이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모들의 모습에서 감동받아 내 역할을 찾았지."

86년 교회의 어려움으로 선교원이 문을 닫게 되자 선교원 자모회, 졸업생 친목회들이 민들레 후원회를 만들어 지금의 놀이방과 공부방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20년을 한결같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지, 나는 그 속에서 내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사람들이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단기간에 왔다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생각이냐고 여쭙보니, "정년까지 해야지. 보육시설 정년이 65세인가? 아이들 리듬하고 나이든 사람 리듬하고 같은 것 같아! 특히 영아에게는 나같이 나이든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일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끔씩 교장 교감 안하고 평교사로 정년퇴직 하는 기사를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곤 하지. 나는 이렇게 일하면서 여기서 정년퇴직 하고 싶어.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 큰 시

설도 중요하고 원장도 필요하지만 나는 민들레 놀이방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어린이집 시작하고 몇 년 안 되어서 일찌감치 원장 되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시설을 운영하는 나로서는 갖고 있지 못한 원숙하고 진정한 보육교사의 모습이 배어 있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재충전이 필요한데..."

지택연에서 보육교사회로 전환하면서 마땅히 참여할 모임이 없으시다고 아쉬워 하신다. 지금 유호순 선생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몸과 마음이 바쁘시란다.

민들레 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노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라고, 지역에서 경로잔치 등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만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화순 목사님이 계시는 강원도 봉평에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터를 마련하셨단다.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의 쉼터를 만들 계획이란다.

요즘 들어서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본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른 일을 해야지... 자기 나이에 맞는 일을 해야 할텐데... 하지만 20년 가까이 해 온 일이라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다른 일을 해 보지 않아서 쉽게 일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지금 유호순 선생님은 56세 이시다. 20년을 아이들과 지역주민과 같이 해오셨고 앞으로 10년을 더 일하시고 그 이후에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신다.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호순 선생님! 우리의 진정한 선배님이십니다!

"나보다는 우리 민들레 후원회에서 하는 일 글로 많이 써 줘."

7개월짜리 영아를 안고 배웅하시는 모습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싶다.



좋은 그림책 소개

〈시리둥둥 거미둥둥〉 옆에 끼고 제주도 한 번 다녀오세요.

김 정 애 · 부산자부

글, 그림 권운덕 | 창작과 비평사 | ,000원



지난 여름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우리 식구 네 명, 형님 식구 네 명. 어른 네 명, 조 무래기 아이들 네 명이 처음으로 함께 간 여행이었지요.

저녁에 부산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서른 명이 함께 지내야 하는 2등 객실에서 새 우잠을 자고, 11시간을 망망대해에 떠 있다가 제주도에 닿았습니다. 후배 부부가 제주 항에 나와 있다가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안내해줬지요. 성계미역국으로 전날 밤의 피로를 풀고, 후배가 넘겨준 9인승 쥘차를 타고 성산 일출봉으로 갔어요. 날이 썩하게 더웠지만 아이들도 잘 오르더군요. 평소 잘 다니지 않는 아주버님은 올라가는 중간 중간 우리를 멈춰 서게 하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출봉에 올라 마지막 사진을 찍히고 나서였죠. 폭 폐인 분지로 내려가 보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멀리 돌아보다가, 웬 시커먼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 걸 보았어요.

“어? 민호, 창호야. 저것 좀 봐. 저어기 보이는 바위 말이야. ‘시리둥둥’에 나오는 그 바위 같이 생겼다.”

“어디 어디? 어, 진짜네. 엄마! 진짜 그 바위 맞다.”

우리는 섭지코지에 있는 검은 바위가 〈시리둥둥 거미둥둥〉에 나오는 바로 그 바위일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주도가 제주도로 안 보이고 온통 그림책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발 딛는 돌담, 무덤가의 돌담, 집을 둘러싼 돌담도 다 그림책 속의 돌담으로 보이겠지요. 나지막한 집들과 빨강고, 노랑고, 초록빛을 한 슬레이트 지붕도 다 책 속의 장면들로 느

껴졌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계속 아이들에게

“저것 좀 봐. 그림책에도 저렇게 생긴 집 있었잖아. 진짜 똑같다. 맞제? 돌담도 진짜 똑같다. 맞제?”

하며 떠들어댔습니다. 다섯 살짜리가 한 명, 여섯 살짜리가 두 명, 일곱 살짜리가 한 명. 남자 아이 넷이 뒷좌석에 앉아 저희들끼리 논다고 북새통을 떨면서도 엄마의 호출에 공감하는지 민호, 창호는 가끔 맛장구를 쳐주더군요. 〈시리둥둥 거미둥둥〉은 나와 민호, 창호만 봤으니까 우리 셋이 유난을 좀 떨었습니다.

저녁 때 숙소로 돌아갈 즈음, 조카 둘과 창호는 꿈아 떨어졌는데 민호는 피곤해 하면서 안자고 엄마한테 치대고 있었어요. 민호를 좀 쉬게 할 생각으로

“시리둥둥 거미둥둥 왕거미 거미줄은 하얘.”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하얀 것은 토끼.” 했지요.

“토끼는 난다. 나는 것은 까마귀.”

“까마귀는 검은. 검은 것은 바위.”

“바위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것은 바다.”

“바다는 깊다. 깊은 것은?”

책을 산 때는 7월이었고, 이야기는 단순했고, 민호는 일곱 살이었지요. 책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나머지 어른들은 그걸 물렸겠지요. 마지막에 내가 독청을 좀 높이며 ‘깊은 것은?’ 하고 물을 때 다들 무슨 대답이 나올까 싶었나봐요. 드디어 민호가 크고 똑똑한 소리로

“엄마의 마음!”

했지요. 그런데 운전 중 하던 남편이 갑자기

“흥! 쳇! 흥! 쳇!”

하더군요. 배가 아팠겠지요. 야단을 쳐도 엄마가 더 치고, 잔소리를 해도 엄마가 더 하니까 수긍 못 하겠다 싶었겠지요. 게다가 늘 아이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잊은 게 있었던 거지요. 엄마가 거의 혼을 내지만, 잠도 거의 엄마가 재우고 책도 거의 엄마가 읽어줬다는 것을요.

〈시리둥둥 거미둥둥〉을 그리면서 권운덕 씨는 슬픔을 슬프지 않게 그리는 것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는 아이를 볼 때부터 너무 슬퍼, 오히려 보석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다고요. 작가의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림이 너무 깨끗하고 단정해서 처음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찬찬히 보니 정말 작가가 말한 슬픔이 뭉클하게 느껴졌어요. 섬집아가 거미랑 토끼랑 까마귀를 친구 하는 것에서도, 고무신을 벗어두고 먹는 쥘 감자에서도, 엄마가 물질하는 바다 위로 날아가고픈 마음에서도 다 슬픔이 묻어났어요. 슬픔은 종일 기다린 아이를 끌어안는 엄마의 해너바구니 안에도 담겨있어요. 고무신 두 켤레만 달랑 놓인 초가집과 그 집에 깃드는 어둠에도요.

한 때 내가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한 백년 맺은 정을 이승에 두고
수궁가 달빛 꿈에 세월 잊었나
어흐라 만경창과 해는 저물고
멧힐사 이내 가슴 물결만 이내
영겁의 바다로다 이어도 사나
영겁의 바다로다 이어도 사나

한 백년 맺힌 한을 어찌하랴구
이어도 푸른 물에 꿈을 묻었나
어흐라 수로만리 달을 기울고
멧힐사 이내 가슴 꿈도 설워라
영겁의 바다로다 이어도 사나
영겁의 바다로다 이어도 사나

중중모리 장단을 북으로 치며 이 노래를 부르면 나는 꼭 고깃배를 타고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님을 그리는 제주 여인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심장에 찌르르한 통증이 오는 것도 같았고요. 하지만 그 때의 내 감정은 오버였다는 걸 <시리둥둥 거미둥둥>을 보고 알았어요. 진짜 삶에서는 슬픔은 묻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스무 살을 갓 넘긴 시절에 내가 부르던 노래는 온전한 노래가 아니었던 거지요. <시리둥둥 거미둥둥>의 엄마와 아이가 고단함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가, 그 엄마에게 아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다음 여름엔 제주도에 한 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시리둥둥 거미둥둥>을 가지고서요.

아이들과의 하루

초임교사의 하루

이보경 · 서울지부 회원

'아이들과의 하루'라는 제목을 들었을 땐,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무지 되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아이들과 지내면서 일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뭉뚱그려서 커다란 이미지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첫 교사생활이어서 일까요? 아이들의 적응기간이 5개월은 족히 되었고, 그 5개월 동안 적응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있는 교구들로 자유놀이만 많이 하게 두었더니 주위 선생님들이 한 마디씩 하더군요. 너무 놀리는 것 아니냐면서.... 유아기에 실컷 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교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놀게 했어야 할 터인데, 저 자신도 적응하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목적 없이 자유놀이를 해 버렸습니다.

1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엔 어린이집이 재워탁으로 어수선해지고, 같이 일하는 교사는 주임이어서 재워탁 일이 끝날 때까지 교실에 2달 반을 거의 들어오지도 못했었으니, '아이들과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에 너무 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변명은 이 정도 해두고,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10월 27일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같이 일하는 선생님의 휴가로 매주 월요일에 오는 실습생과 둘이서 아이들 14명을 보게 되었습니다(제가 맡고 있는 반은 영아반으로 교사 2명에 영아 14명입니다).

9시쯤에는 14명 중 4명의 아이들만 등원한 상태였습니다. 이 중 1명은 지금 현재 다른 몇 명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나머지는 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있음) 요한 달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이집에 오기 싫어하는 아이로, 오늘 아침도 어김 없이 울고불고 엄마한테 간다고 떼를 씁니다. 저는 아직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일

단 어느 정도 울도록 방치하는 쪽이어서 이 아이가 우는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 오늘은 다른 영아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10분도 안 되어 진정하고 놀게 되었습니다. 30분 쯤 후에 지난주부터 엄마와 떨어지기 시작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경우도 울고 싶은 만큼 울게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동료 선생님은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이래 알아서 잘 데리고 계시지만...). 우연히 아침에 따돌림당하는 아이를 달래주었던 선생님이 다른 일로 저희 반에 오셨다가 이 아이도 아주 능숙하게 다루시더니 울음을 그치게 만들고 교실로 가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역시 초보와 경력자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아를 달래고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경험과 기술이기에 '보육교사는 전문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요새는 아이들을 보는 것에 대해 의욕을 상실해 버린 듯 합니다. 초임인데다, 동료교사는 주임이어서 어린이집 전체 돌아가는 것에 관여를 해야 한다 하고(전 원장이나 현 원장이나 주임은 원장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료교사를 주임으로 하지 말고 주임을 따로 두시든지 아니면 우리 반에 교사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요) 8~9월까지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지요(이런 상황에서 초임이 '하루 일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감을 감사히'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구요). 게다가 재워탁 건으로 시끄러울 때, 사무실이 교실 바로 옆인데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반 분위기가 엄청 산만해지고, 처음 4~5개월 길려 잡았던 규칙이나 아이들의 적응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교사를 무서워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도 장난으로 넘어가 버리는 아이들이기에 '내가 계속 교사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루에 1번 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고민들도 초임교사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큰언니가 보육교사 경력 10년이기에(그것도 영아반) 너무나도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들었지만, 역시 그렇게 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아이들과의 하루'로 이야기를 하려다가 '초임교사의 고민'으로 옮겨가 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알찬 하루를 보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도 아이들과 1~2시간 정도만 같이 있다보면,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가 가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덕분에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어린이집 상황도 ①초임인데다 ②유아들이 엄청 전부 드센 아이들이고, ③재워탁건으로 어린이집이 두 달 반을 어수선하게 보냈고, ④동료교사가 주임이라 반 일은 거의 저 혼자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 제 개인적으로 방통대를 아직 졸업 못 해올 해 1년을 더 공부해야 했고, 서울지부에서 홍보부장을 맡아 그 책임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해봅니다. 내년에 만약 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를 한다면 제발 아이들 보는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구요. 3년차까지는 아주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내년에도 올해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친다면 '보육교사'라는 것이 아주 싫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최종문 · 서울지부 회원

01 [집에 간 송아지]

음률시간에

나: (피아노를 열며) 노랑반 친구들 우리 노래 부를까요?

송주: 선생미!! 선생미!! 송아지 불러 송아지.

나: 그래. 그럼, 우리 송주가 친구들 앞에서 송아지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어요?

송주: (긴장한 표정으로) 송아지 집에 갔어...... 없어......

나: (박장대소) 하하하......

02 [황당한 대지 이야기]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유아들

세린: 나 대지 아파트 산다.

준철: 돼지??

야! 꿀꿀돼지가 사는 아파트에 사람이 어떻게 사냐??

세린: 선생님!! 대지 아파트 있지요?

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준철아 그 대지는 그 돼지가 아니야.

대지는 대나무 할 때 대자도 있고, 대구 할 때 대자도 있단다.

준철: (그래도 더 장난을 치고 싶은지...... 옆에 조금 뚱뚱한 친구에게) 돼지야!!

나: 준철아!! 친구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철: 아니 그 돼지 말구요... 대지요 대나무 할 때 대지요... 해...

03 [못난아...]

장난을 치고 싶던 나...

나: 기철아!! 기철이 예쁜이야 못난이야??

기철: 못나니야 못나니.. ㅋㅋ

04 [안 밍다구...]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온 송주에게...

나: 송주야! 이렇게 예쁜 옷 누가 사주셨어요?

송주: 엄마! 아빠!

나: 그래요! 왜 사주셨을까? 밍다구?

송주: 안 밍다구.

노동자는 하나다!

고영미 · 본회 조직위원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는 그냥 노동자일 뿐이다. 맞습니까?

당신은 노동자입니까?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노동자입니다!

몸뚱이 하나가 전 재산인 그냥 노동자입니다!" 입니다.

전 그렇게 배웠고 그렇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노동자에도 구분이 생겼습니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당신은 정규직 노동자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입니까?

오늘은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월26일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용석(31)씨의 분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외치던 노조 간부 이용석씨가 몸에 신너를 뿌리고 분신을 했다는 기사를 보며 저는 뭐라 차마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감안한다면 노조 간부 이용석씨의 분신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1백29일간의 고공 크레인 농성 끝에 자살하고

금속노조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한 데 이어 또다시 노동자가 분신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 중 거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에도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자신과 동지들을 위해 신분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장으로, 거리로 나서다가 이제는 분신을 하기에 이른 그날의 현실을 보며 저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저로서는 분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쥔거립니다. 남편 먼저 보낸 부인, 아비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자식을 앞장세운 부모님들 ...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목숨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꼭 그래야 했을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다가, 천 갈래 만 갈래 생각이 머릿속을 마음속을 뒤횡횡여 놓았습니다.

비정규직 이용석씨의 분신의 원인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도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이 다르더군요.

혹자들은 철용성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원인을 두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더군요.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나친 기득권유지 정책의 투쟁방식 철회 및 선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에 바랍니다.

지금은 재신임을 물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그 많은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 도시서민, 농어민들의 정당한 삶의 권리가 존중받고 그들이 이 나라 중심

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실의와 분노에 빠져 죽음의 경계선을 밟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즉각적인 관심과 정책적 중재적 대책을 내어오고 분배경제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 아닙니까?

노동자 여러분도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험난하고 살맛 안 난다 해도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께겐 아이들이 있고 그들의 미래를 좀더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할 역사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꼬물거리는 손과 발을 보고 있으면 용기가 나실겁니다.

내일은 어제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여러 보육노동자들과 함께 하고픈 맘에 두서 없는 글인 줄 알면서 몇 자 적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보육의 궁합(?)

임정수 · 본회 조직간사

난 디지털 카메라(이하 디카)를 200%로 활용했다. 왜냐하면 디카로 무지막지하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약 6,500장의 사진을 찍었다. 찍고 또 찍은 것이다. 또한 디카를 이용하여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또 디카를 이용하여 상도 받았다. 지금 쓰는 이 원고는 종로구에 제출한 원고 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쓰는 것이다.

내가 처음 디카를 선택하게 된 것은 학교 공부(보육)를 마치고 어린이집에 채용이 확정된 시점이다. 그때는 신입교사로 일년간 근무하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이 고민 끝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장만했다.

실제 현장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또 한 다른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와 결합하여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현장에서 아동과 나는 보육이란 인위적인 틀 속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만남이 인위적인 틀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아끼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보육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디지털을 활용한 보육이 주는 의미는 하이테크놀로지의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라 분명 사랑의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현장에서 디지털 자료는 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되어 줄 것이며, 교사는 수업 준비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보를 쉽게 확보, 창출, 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을 잘 활용하면 아동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① 사용한 디지털(컴퓨터) 기기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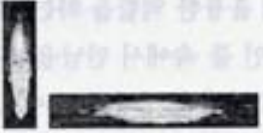


[본체]



[대형TV]

9 디지털 활용의 사례

구분	사 진	설 명
포트폴리오 평가		아동의 정서상태가 잘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정서상태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아동의 특성 및 성향을 분석·예측할 수 있다.
부모상담		부모상담시 평소 디지털로 찍어두었던 사진 중 의미 있는 사진을 근거로 부모의 상담한다.
환경구성		아이들의 실제 활동을 사진으로 담아 환경을 구성했다.
교수학습 자료		아이의 사진을 넓히고 좁히는 활동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전자앨범		1년 동안 찍은 사진을 아동 개인별로 졸업하는 시점에 전자앨범을 만들어 준다. 개인별로 약 2000장 정도의 사진이 담겨있다.
보육일지		하루 일과를 사진과 함께 부모와 소통한다. 이 다음에 소중한 기록물로 아이들에게 적용할 것이다.
안전교육		아동들의 안전한 견학을 위해 견학 전 실제 안전선 사진 촬영을 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견학활동을 진행한다.

상담실 Q&A | 산재

이 코너는 한국보육교사회로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Q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반에 있는 아이와 활동을 하다가 아이의 머리에 제 얼굴이 부딪혀서 이가 부러졌습니다. 치료비 등을 산재처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 산재보험에 관한 모든 것!

☞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또 생리적 필요행위나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② 시설물에 위험요소(결함)가 있거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재해가 근무시간외라고 하더라도 자해행위나 위험물을 비켜가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③ 업무를 보기 위해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업무로 인한 출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자(원장)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마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원장)에게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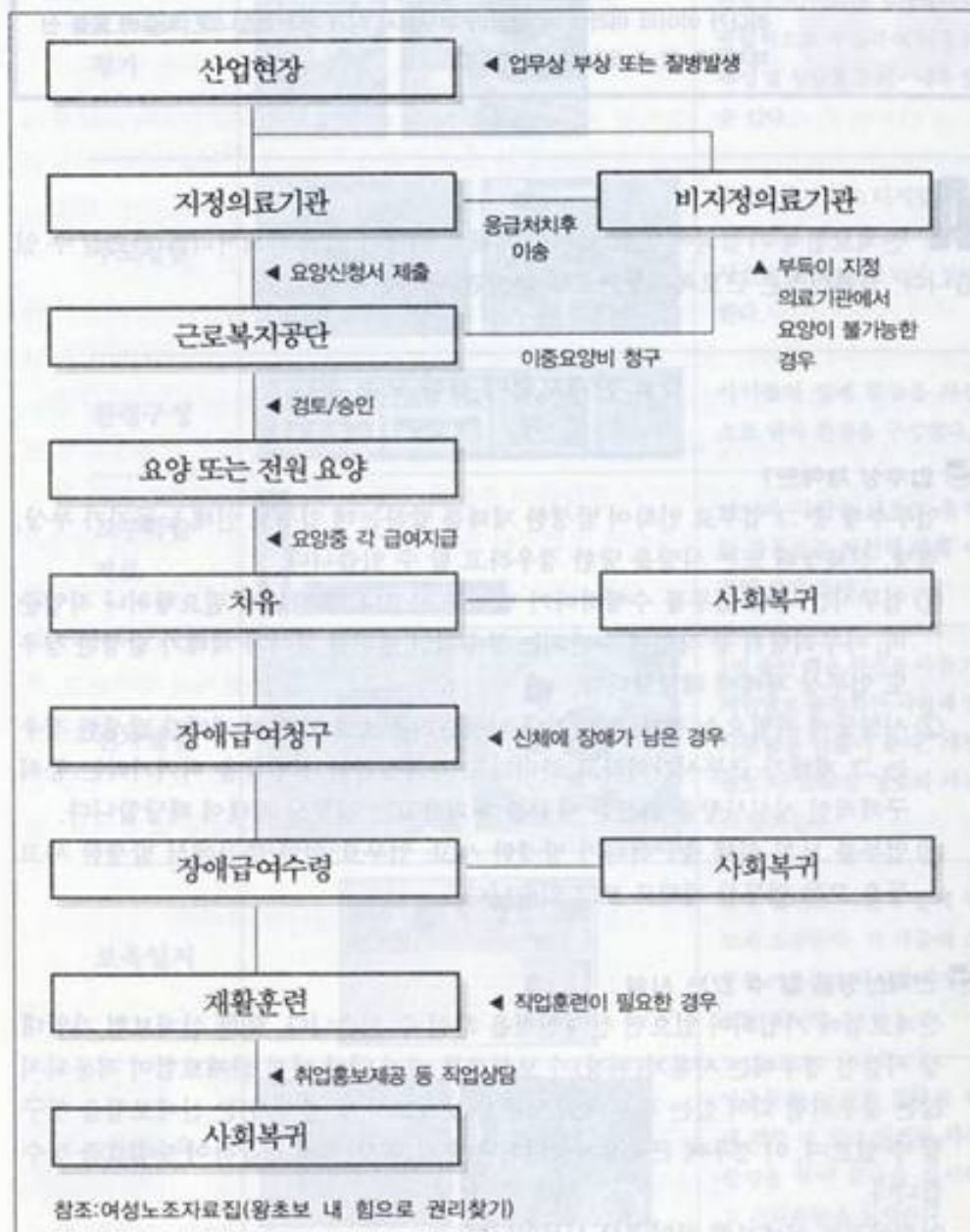
어린이집은 산재보험 가입대상 시설입니다.

산재신청은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 : 부상,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산재처리과정



2003년도 보육사업지침

-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연간보험료 : 종사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5

산재보험진료비 산정 및 청구 안내

1. 산재보험 진료비란 ?

산재지정 요양담당기관에서 산재환자에 대하여 요양을 제공함에 따라 이에 소요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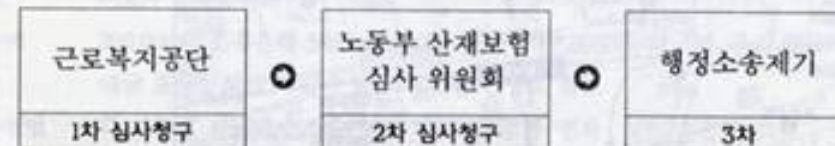
2. 산재보험 진료비의 산정

산재보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와 약제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이를 적용함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하여 고시

재해 발생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 ①요양급여: 부상과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치료 종결까지 전액 지급. 단 3일 이내 요양일 경우 요양급여 지급 안 함.
- ②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③장해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지급
기타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 있음.

보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차 심사청구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소개

산재보험무료상담실 - <http://www.sanjae.pe.kr>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관련) - <http://www.welco.or.kr/korean/files/main/main.asp#>

한국보육교사회 제8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일시 2004년 1월10일(토) ~ 11일(일)

장소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연수원

*자세한 총회 일정 안내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회 장소 찾아오는 방법

지방에서 오는 경우

영등포역에서 하차 → 인천행 전철 타고 송내역에서 하차 → 북광장으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부천 복사골연수원

경인지역

인천행 전철 타고 송내역에서 하차 → 북광장으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부천 복사골연수원



2003년 유아교육학술대회

주제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 어린이와 경제교육

내용 어린이와 경제교육 '왜, 무엇을, 어떻게' /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선진국의 경험 / 유아교육에서의 경제교육-극놀이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유아 경제교육을 위한 창의적 극놀이 활동

일시 12월 6일 09:00-16:00

참가대상 유아교육 관련자 및 일반인

장소 한국어린이육영회 5층 강당(잠실)

참가비 2,500원(1인 기준, 교재 및 중식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 입금(우리은행 160-000842-13-038 (사)한국어린이육영회), 입금 후 본회 홈페이지 접속, 참가신청서 입력, 불참시 참가비 환불 불가(교재는 행사 후 우송).

참가문의 한국어린이육영회 부설 연구개발실 02-415-5468

<http://www.yukyoungh.or.kr>

유아체육 및 유아무용단기연수생 모집

일시 <제11차> 12월 27일-2004년 1월 10일(매주 토, 일요일),

<제12차> 2004년 1월 11일-1월 25일(매주 토, 일요일)

시간 09:30-18:30

장소 서초구민체육센터

연수비 290,000원(조흥은행 348-04-620058 유아체육) 교재비, 교구비, 음악 및 교육내용 CD 대금 포함, 회원 가입비 및 자격시험 전행료 별도

접수방법 각 기수별 전공별 선착순 30명 마감, 입금 후 전화

문의 사단법인 한국유아체육협회 02-584-6565

어린이집 행사 및 견학(서울시보육정보센터 강좌)

일시 2003년 11월 21일(금) 14:00 ~ 17:00

장소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실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120명

내용 유아들에게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행사와 견학을 통한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관의 역사를 만드는데 목표를 둔다.

강사 박희원(수유1동어린이집 원장)

자료대 1,000원

평화보육교사교육원 유아교사 율동강습회 단기 특강

일시 2003년 11월 22일(토) 오후 15:00-16:40

내용 12월 단원별 실기지도의 실제(손유희, 노래, 율동 등)

준비물 간편한 복장

교육비 1만원

강사 김래영 교수

문의 교무과 02-762-4558, 02-744-4968

대구유아교사문화원 전문가 연수

제16기 영·유·아영미술전문지도자

일시 토요일 - 12월 6일 개강 14:30-20:00
월목반 - 11월 10일 개강 19:00-21:30(6개월)

달크로즈유리드믹스음악

일시 매주(월) 16:30-19:00(고위-5개월)
19:00-21:30(연구-5개월)

어린이국악전문지도자

일시 월요일 - 11월 17일 개강 19:00-21:30(5개월)

문의 053-422-4252-4(대구역에서 10분거리)

2003년 보육시설 공개연구수업 일정 및 참관신청 안내

일시 2003년 11월 15일-11월 2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2시 30분

장소 선재마을 놀이방, 매곡어린이집, 큰세상 어린이집

참가신청 접수 2003년 11월 12일(수)까지

문의 안양시보육정보센터(T. 383-5170-1)

영유아 건강과 아기마사지 부모교육

일시 2003년 12월 1일(월) 10시 ~ 12시

장소 성남 시청 대회의실

주제 영·유아 건강과 베이비 마사지(마사지 시연)

대상 영·유아 부모 및 보육시설 종사자,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과 학생

강사 고노 고로(일본 소아보건협회 고문)

강사약력 동경대학의학부 졸업 소아과의 의학박사
동경 가세대학, 세이토쿠대학 교수 역임.
현 일본보육원보건협의회 회장
현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 회장
현 어린이의 성·소아보건클리닉원장

문의 031-708-3887, 3411(성남시 보육정보센터)

대체인력회원 모집

의왕시에서는 2003년부터 보육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라 의왕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보육교사·취사부) 대체인력 회원을 모집한다.

보육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 출산휴가(보육교사, 취사부) : 90일 이내
- 보수교육(보육교사) : 5일 이내
- 실기교육(보육교사) : 2일 이내
- 2주 이상 병가(보육교사, 취사부) : 21일 이내 (연간 60일 이내, 진단서 첨부)

경기도보육정보센터개관 안내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기도보육정보센터가 11월 12일(수) 개관하고 보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지방공사 건물 내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www.ggeducare.or.kr
www.경기도보육정보센터.kr(개통 예정)
전화 031-239-1485
E-mail gg1485@hanmail.net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립

부산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보육시설에 필요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직장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516-42 부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5층
전화 051-328-5272~5 팩스 : 051-328-5276
홈페이지 직장보육(www.ESCAC.or.kr)

중앙소식

- 9월 2일 여인 정치소위 주최로 총선 관련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4년 17대 총선에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9월 3일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참여수석 박주현)에서 여성평화의 집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방문하고 각 단체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실 방문 후 저녁시간에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와 김진숙 서울지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9월 5일-6일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고 우리회에서 진행하는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자 훈련'의 부산경상권 교육이 부산 삼성해운대 연수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6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전통교육강좌가 있었습니다. 1강 한지를 이용한 활동(강사 양은희), 2강 천연염색 활동(강사 강영신)이 6일 진행되었고, 20일에는 3강 민화프로젝트(강사 고영미), 4강 장단아 놀자이야기가 있는 옛 노래와 놀이(강사 고정미)가 진행되었습니다. 40 여명의 보육교사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이 보육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 9월 7일 한국보육교사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각 지부 별로 진행된 여름수련회에 대한 평가, 상반기 중앙사업에 대한평가, 하반기 사업승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9월 9일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여성평화의 집 운영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9월 17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육조례운동사례집 제작과 보육교사 상담사례집 제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9월 18일 조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육노조 건설을 위한 로드맵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9월 19일-20일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고 우리회에서 진행하는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자 훈련'의 인천지역 교육이 경기도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0일 한일보육교류연수 2003년 연수팀 1차 준비회의가 있었습니다. 한일보육교류의 역사와 일본보육제도에 관한 학습이 진행되었고, 재일교포 김지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일본어 배우기, 황호정 회원과 함께 하는 일본연수 경험담 듣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선임, 김진숙, 이은희, 강영신, 이수미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 9월 22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학습한 '돌봄'을 주제로 우리회 보육철학의 바탕이 될 자료를 집필 중에 있습니다.
- 9월 2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보육

료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에 관한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9월 25일 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모임을 평가하고 하반기 모임에 대한 진행계획을 세웠습니다.

● 9월 26일~28일 한국보육교사회 일꾼들과 함께 경주에서 "일꾼 힘 키우기"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인 33명 아동 17명이 참석하였고 2박3일간 습과 교육이 겸비된 일정을 보람차게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 9월 29일 보건복지부 국감용 질의서를 여연으로 취합하여 국회 복지위에 전달하였습니다. 본회는 보육교사 관련예산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지원항목이 빠진 부분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9월 30일 보육단체연대회의가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서울시어린이집2놀이방 연합회, 본회가 참석하여 8월 13일에 진행된 정책토론회와 평가와 이후 활동 계획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9월 30일 한국노총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의 유아교육·보육 공공성을 위한 5개 단체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참석단체는 한국노총 여성국, 민주노총 여성국, 전교조유치원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등이었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책토론회의 공동주최를 제안하였고 정책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9월 30일 서울지부 회원정책교육을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교사"라는 주제로 이윤경 공동

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1일 여연 복지위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2일 여성부 보육정책에 대해 이윤경 공동대표와 정책1담당관 및 담당사무관이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2일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10월 9일 대구지부회원을 대상으로 보육노조에 대한 교육을 이윤경 공동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10일~11일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회에서 진행하는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자 훈련'이 대구 힐사이드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3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년동안 진행된 모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한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10월 14일 한국노총회의실에서 진행된 유아교육·보육 공공성을 위한 5개 단체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9일 양대노총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유아교육·보육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 10월 15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10월 16일 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돌봄을 거부하는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 나누기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0월 17일~18일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고 우

리 회에서 진행하는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자 훈련'의 광주전라권 교육이 전남 화순 도곡온천관광호텔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8일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사례를 통해 본 보육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이윤경 공동대표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19일 한일보육교류연수단이 출국하였습니다. 연수단은 2주간의 시설연수를 마치고 11월 1일 귀국합니다.

● 10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파병반대국민행동' 비상시국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본회가 참여하고 있는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는 11월 15일까지 노무현정부의 파병결정철회를 위한 촛불시위 및 시국농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파병반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10월 25일 조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꾼 힘 키우기" 수련회 평가와 로드맵 수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27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0월 28일~31일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주관한 노조간부 기본과정교육에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29일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여하였습니다.

● 10월 29일~31일까지 서남재단에서 주최한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 국제 유아교육 심포지움에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7일, 14일, 21일, 28일 총 4주에 걸쳐 보육교사 처우관련 상담교육이 우리 회 사무실에서 열린 논의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1일 한일보육교류연수단이 2주간의 일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열심히 연수받고 돌아오신 선생님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9월 26일~27일 보육교사회 전국 일꾼 수련회에 김진숙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박인해, 김미나, 최종문 일꾼들이 참석했습니다. 멀리 경주까지 가서 낮에는 알찬 경주 관광을 즐기고 밤새 일꾼으로서 교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참, 황호정 선생님도 육아도우미로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9월 30일 서울지부 9월 월모임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왜 보육의 공공성을 이야기

하는가"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조출한 생일잔치도 있었지요.

- 10월 5일 서울지부 확대운영위 회의가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집행부장들이 모여 교사회의 조직변화와 함께 지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와 총회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 10월 7, 14, 21, 28일 근로기준법 연구 모임이 보육교사회 교육장에서 있었습니다. 중앙사무국에서 주관하는 보육교사 현장 상담과 정 교육에 참가하여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10월 8일 홍보부 온라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일정동안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 10월 18일 서남 어린이집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눈과 가슴으로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방문 후에는 서울지부 10월 월모임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대표님을 모시고 보육노동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10월 20일~11월 1일 보육교사회 한일 현장 교류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에 김진숙, 이수미 선생님이 참여하여 무사히 일본 현장을 체험하고 오셨답니다. 많은 힘 받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11월 6일 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직부장님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자리였

습니다. 서울지부의 김미나 조직부장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7일 서울지부 확대 운영위가 교사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집행부장들이 모여 총회준비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11월 21일 서울지부 11월 월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월모임입니다. 모두 참여하여 그동안의 회포를 풀 수 있으면 합니다.
- 12월 6일 서울지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이므로 모두 참석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경기지부

- 9월 20일 지회간 순회교육 2차로 안산지회에서 수원과 부천시회 회원들에게 민화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후 부천은 민화 열풍이 불어서 아이들이 화가로 변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다음은 수원지회에서 요가 교육을 하고 부천시회에서는 차 마시기로 회원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 10월 12일 경기도 산본에 위치한 수리산에서 회원의 날을 생태기행으로 했습니다. 전문강사 없이 회원들이 그동안 각자 알고 있던 나무와 풀, 꽃에 대한 지식들을 총동원해 각자 돌아가며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평안한 맘에 들어서인지 더욱 재미 있었습니다.
- 모르는 것은 책을 찾아가며 열강을 해준 전경숙 회원 덕에 더욱 값진 생태 체험이 되었

습니다.

- 경기지부 운영위는 월 1회 정기회의와 격주 재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탕회의도 자주 하다보니 이젠 제법 회의다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속한 사업진행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부

- 9월 19~20일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기능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연수가 복사골 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인천,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시설장들과 인천지부의 이순, 이인희, 박은아, 류지민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 9월 26~28일 2박3일의 경주에서 있었던 확대간부수련회에 박은아, 이경미, 류신정, 김원희 선생님과 정송희, 여동수, 여진수가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엔 조직차장이 지갑을... 둘째 날엔 조직부장이 핸드폰을... 셋째 날엔 지부장이 핸드폰을 잃어버려 다른 지역 생들이 드라이브(?)를 자알 -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천지부입니다!!!
- 10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총 4회에 걸쳐 중앙 사무실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상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육관련 법, 지침 설명, 주요 상담사례분석, 상담요령 등이었고, 인천지부에서는 류신정 선생님이 참가했습니다.

대구지부

- 디딤 어린이집과 한사랑 어린이집 간의 생

활교육이 1박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 10월 9일 이윤경 공동대표를 모시고 회원교육이 디딤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0~11일 보육사업에 관련된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포괄적 보육서비스로의 보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1월 8일 한사랑 어린이집의 개원 잔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부산지부

- 9월 17일 보육조례안 운동본부 참가 내부 토론회
- 9월 24일 생태교육 3강(전래놀이 노래의 생활화)-강강수월래
- 10월 3일 보육조례제정청구 서명운동 개시
- 10월 8일 생태교육 4강(자연물 놀이감 만들기)-나무벌레, 찌투리 나무로 만드는 공작놀이
- 10월 28일 보육조례제정청구서명전 거리캠페인(서면 롯데백화점 앞) 보육조례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회별로 거리서명도 나가고 있습니다.
- 10월 28일 서면 롯데 백화점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노래를 불러준 방과후 친구들이 고생했습니다. 11월 8일 지방분권 걷기대회에서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 11월 초 예정이던 보육조례공청회는 12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 10월 30~31일 생태교육 시상식, 시상식
-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개소식
- 11월 15일 7년차 이상 확대일꾼연석회의 있

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양성평등 육아문화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를 10월 11일(토), 10월 25일(토)에 광주 상무공원과 첨단호수공원에서 2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양성평등그림책 전시, 엄마 아빠 소원 지 적기, 부모와 함께 자전거 타기, 양성평등 노래 선보이기 등 여러 활동을 했는데 부모들의 바람직한 육아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11월 15일에는 마지막으로 연사초청 강연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10월 17일(금)-18일(토)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이 전남 화순 도곡온천관광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20일에는 그동안 보육조례팀에서 진행해온 보육조례연대회의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 11월 15일 월례회에 노조건설 로드맵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가저갈 계획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10월 12일 아기자람터의 한혜정 선생님이 결혼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 물리 김영수 선생님이 분가하셨습니다.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있으시

면 연락 주세요.

- 부친의 박양숙 생이 남자친구가 생겨 요즘 화색이 듭니다. 우리(선배)가 먼저 선을 보고 승낙을 해야 하는 건데..... 예전에 저희는 연애도 허락 받고 했는데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선배들이 버리고 있는지는 아는 지 모르는지.... 애타게 이왕 시작했으니 잘 되길 바래 봅니다.
- 부친의 이교진 생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예뻐지는 걸로 봐선 사실인 것도 같고.. 애타게 교진생님 남자친구도 선을 봐야 하는데! 선배들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어서 교진생은 관절염으로 고생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 수원의 전리라 생이 드디어 수원지회 회의에 결합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정이 안 맞아 회의 결합이 어려웠는데 수원지회의 새로운 별이 뜨는 것 같습니다. 열렬 환영합니다.

휴직하십니다

- 광주전남지부의 김수중 교육부장과 최혜영 회원이 11월부터 출산휴직에 들어가십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 광주전남지부 이승희 선생님의 모친상이 10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 수원의 윤금주 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주 간만에 시험(중간고사)을 치렀답니다. 좋은 성적 기대하며 장학금 받으면 한턱 쏘겠죠!
- 수원의 이기원 생은 부친과 안산회원이 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여름 수련회 이후 만나지 못해 모두 보고 싶어합니다. 조만간 만나면 진하게 술이라도 한 잔 해야겠습니다. 긴 수다와 함께 말이지요!

회비를 내셨습니다

<자료회비>

김정희, 박정혜, 장문규, 이준미

<지부회비>

부산지부 완납, 서울지부 완납, 광주전남지부 완납, 인천지부 완납, 경기지부 완납, 대구지부 완납

<중앙회비>

서은희, 조선경, 하미선, 김명미, 김은숙, 김지혜, 김지희, 김호연, 노수산, 신선주, 김실이, 조선영, 최루미

<평생회비>

유정은

<후원해주셨습니다>

오윤정 2만원, 백선희 2만원, 오영숙 2만원, 권성춘 4만원, 김경인 2만원, 김동현 2만원, 김은주 1만원, 김정윤 2만원, 김종원 6만원, 김진명 1만원, 남명자 4만원, 류호선 10만원, 박선

하 2만원, 박은아 6만원, 박차리 1만원, 신주영 1만원, 신현미 2만원, 오선영 9만원, 원명순 2만원, 이주연 1만원, 이지수 2만원, 이현경 4만원, 이희경 2만원, 임태형 2만원, 정성일 2만원, 하운하 2만원, 한만우 2만원, 김효선(여성신문사 발행인) 50만원, 이영혜(월간디자인 대표이사) 50만원, 유순신(유엔파트너즈 대표이사) 50만원, 김청경(김청경헤어페이스 원장) 50만원, 김원철(포디움건축사무소 소장) 50만원, 한상만(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마케팅전공 교수) 50만원, 최주리(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50만원,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50만원,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50만원,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50만원, 이상옥 10만원, 이정미 3만원, 황미혜 5만원, 강영신 5만원, 김현빈 4만원, 박주현(국민참여수석) 20만원, 서울지부 25만원, 유영일 5만원, 이순 4만원, 이은애 30만원, 장현자 5만원

* 모든 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인사 전합니다.

편집부에서

• 가을이란 계절 닷인지

이번 『우리네 아이들』속에는 각 지부의 활동소식들이 풍성하게, 가시송이 속에 배곡이 들어찬 알밤처럼 그렇게 콰콰 채워져 있습니다.

기획안을 만들 때엔 물었는데 이번 호가 올해 마지막 발행물이네요.

내년 첫 발행물도 이번 현장소식들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그득해서, 밤잠 설치고 새벽녘 찬 바람 맞아가며 그물 올리는 어부의 환한 미소처럼 그렇게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는 여러분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를 떠올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앗! 그러고 보니 연말 인사를 여러분께 미리 전해드려야 하는 거로군요.

여러분—

올해 남은 날들마다 기분 좋은 일들 하나씩은 꼭 생기시길 바라구요, 내년엔 『우리네 아이들』 더욱 많이 사랑해주세요—

• 드디어(?) 11월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떤 감회로 11월이 다가올 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11월은 '해방(1)의 달'입니다.

이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긴 동면으로 빠져들 참입니다.

번득이는 두뇌들을 지닌 닷에 늘 일을 잔뜩 벌여놓고 손발을 귀해 1인3-4인 역을 해대야 하는 사무국 식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만...

유명한 영화 대사 하나로 그 미안함 대신합니다.

I'll be back...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안전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